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 ▶ 일시 : 2014년 5월 30일(금) 15:00 ~ 19:00
- ▶ 장소 : 엘타워 5층 지니아홀
-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사회: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개회	15:00~15:10	▣ 개회사
세션1	15:10~15:50	▣ 숲 프로그램 현황 진단 ▶ 숲 자원, 인력 양성과 배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진단 -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 토론 - 임연진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
세션2	15:50~16:40	▣ 숲 프로그램 모델 사례 ▶ 영 국 -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캐나다 - 전호성 (내일신문 기자) ▶ 한 국 -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세션3	17:00~17:40	▣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 및 운영현황 진단 ▶ 학교 징계 청소년 현황, 프로그램 운영 진단 및 숲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 김범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비행 청소년 현황, 프로그램 운영 진단 및 숲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주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 고성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종합 토론	17:40~18:00	▣ 숲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방향 ▶ 진행 - 김혁진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폐회	18:00~19:00	폐회 및 저녁식사

목 차

세션 1 • 숲 프로그램 현황 진단

- 산림교육 자원 현황 진단 3
하 시 연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 토론문 29
임 연 진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

세션 2 • 숲 프로그램 모델 사례

- 캐나다 숲 프로그램 사례 37
전 호 성 (내일신문 기자)
- 한국 숲 프로그램 사례 47
조 아 미 (명지대학교 교수)

세션 3 •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 및 운영현황 진단

- 학교 징계 학생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77
김 범 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사법단계에서의 비행청소년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진단 93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131
김 주 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김 기 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세션 1



숲 프로그램 현황 진단

발표



산림교육 자원 현황 진단

하 시 연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산림교육 자원 현황 진단

I. 산림교육의 여건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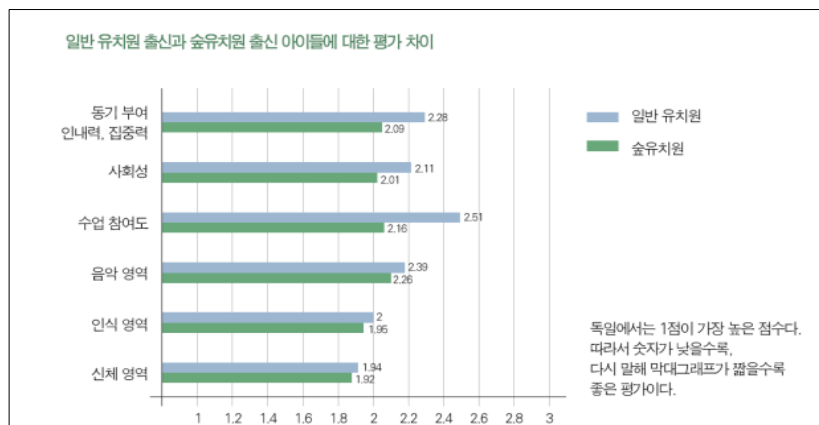
1. 유아 · 청소년의 창의 · 인성함양 교육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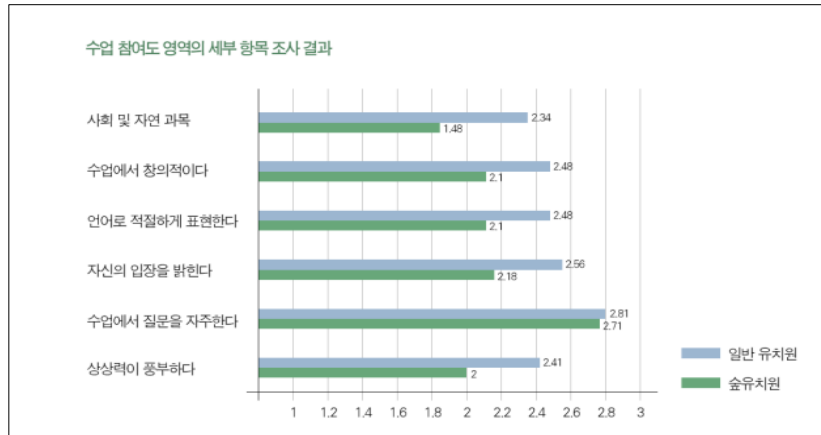
가. 숲체험 중심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평가 및 관심 증가

- 독일 등 유럽선진국의 숲유치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생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독일에서는 '90년대 숲유치원이 활성화되고 '93년에 정식 유치원으로 정부에서 인정하여 현재 약 1,000여개의 숲유치원이 운영

〈숲유치원과 일반유치원 유아평가〉
(’03. 독일 헤프너 박사)

- 숲유치원 유아가 일반유치원 유아보다 창조력과 상상력, 운동력과 학습참여도 및 언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





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증가

- 학업중단, 비행·범죄 등 위기·취약청소년 170만 명 추산
 - 청소년 가출 경험율 증대 : ('02) 8.5% → ('05) 9.9% → ('07) 10.9%
 - 학업스트레스와 경쟁적 분위기 등으로 자살시도 청소년 증가 추세
 - '10년 청소년의 69.6%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08년 (56.5%)과 비교하면 13.1%p 증가
 - '09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
- ※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08년 13.5명에서 2009년 15.3명으로 증가

<청소년(15~24세)의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가정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생활	
	2008	2010	2008	2010	2008	2010
15~24세	41.4	42.3	64.4	66.9	56.5	69.6
15~19세	44.7	45.6	68.8	68.2	60.0	70.3
20~24세	37.4	38.3	54.1	63.7	52.4	68.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뉴미디어 역기능 등으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노출 청소년 증가
 - 청소년의 4.4%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21.8%('08,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11년도 학교폭력 민원이 '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2, 학교폭력근절대책)

다. 교육정책 변화 및 숲체험 효과로 인해 산림체험 · 교육수요 증가 예상

- 주5일 수업제에 따라 학생들의 토요일 활용계획,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여유시간 증가
 - 반면, 맞벌이부부 · 저소득층의 토요일 자녀관리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토요일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활동(학부모) : 가족단위 여가(50.6%),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참여(21.4%), 방과 후 활동(16.7%), 학원수강 등 사교육(6.6%)
- 방과 후 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또는 가족단위의 다양한 자연체험 수요 증가 예상
- '10년 초 · 중 · 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비율이 55.6%로 '09년 51.3%보다 4.3% 증가
-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을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활용

라. 학교 안·밖의 체계화된 산림체험 · 교육시스템 미흡

- 청소년 산림교육 및 전문화된 체험 · 수련시설은 숲채원, 백두대간 숲생태원, 여성전 산림교육관, 숲속수련장 등 총 28개소임
- 10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 산림교육 전문시설은 1개소에 불과

<숙박형 산림교육 · 체험 수련시설 현황('11)>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 소 수	28	3	9	3	2	2	5	3	1
	수용인원	2,272	264	1,119	174	120	50	305	210	30
숲 속 수련장	개 소 수	25	3	7	3	2	2	4	3	1
	수용인원	1,732	264	639	174	120	50	245	210	30
숲채원	개 소 수	1		1						
	수용인원	400		400						
백두대간 숲생태원	개 소 수	1						1		
	수용인원	60						60		
여성전 교육관	개 소 수	1		1						
	수용인원	80		80						

-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계층별·시설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화 미흡
 - 여성가족부, 환경부에서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1,600개, 135개인데 비해 산림교육프로그램은 7개에 불과
- 일선 학교 교사들의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림교육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교사들이 산림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족

2.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수요 증대

가. 산림의 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휴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산림휴양수요 : ('09) 304 → ('10) 331 → ('13) 427백만 명('07, 국립산림과학원)
 - 산악레포츠 인구전망 : ('91) 10 → ('07) 210 → ('12) 300만 명('07, 등산기본계획)
 - '10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 90.9%(미국 80.8%, 일본의 65.7%)

<도시화 추세>

구 분	'80	'90	'00	'10
○ 전국인구	37,449	43,520	47,964	50,516
- 도시	25,738	34,634	42,375	45,933
- 비도시	11,711	8,886	5,579	4,583
○ 도시화율	68.7	79.6	88.3	90.9

자료 : 국토해양부

<국민 평균여가시간 추세>

구 분		'06	'08	'10	향후 전망
일평균 여가시간 (시간)	평일	3.1	3.0	4.0	5.1
	휴일	5.5	6.5	7.0	8.5
월평균 여가비용 (천원)		142	139	168	26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숲을 이용하여 질환의 예방 및 치유하려는 국민적 수요 증가
 -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여자 : ('09) 1,067 → ('10) 3,063 → ('11) 11,327명
 - ※ '09년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61.1%, 질환자의 75.2%가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산촌지역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연계한 녹색생태·체험관광의 수요가 증가
- '11년 산촌생태마을 이용자 수가 1,213천명으로 '09년 1,134천명에 비해 6.9% 증가

<'09~'11년 산촌생태마을 이용자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마을 수(개소)	204	238	238
이용자 수(천명)	1,134	1,224	1,213

3.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요구도 증가

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산림교육분야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율은 '11년 현재 21.9%로 10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2, 현대경제연구원)
- 전체 체감실업율은 11.3%으로 사실상 실업자는 309만 명으로 추산
- '10년 청소년(15~24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직업”으로 조사 ('10, 통계청)

<청소년(15~24세)이 고민하는 문제>

(단위 : %)

	계	외모/ 건강	가정 환경	용돈 부족	공부 (성적)	직업	친구 (우정)	이성 교제	학교 폭력	흡연, 음주	기타	고민 없음
<2002> 15~24세	100.0	19.7	8.9	5.4	39.8	6.9	3.3	7.8	1.9	1.8	4.2	0.3
<2010> 15~24세	100.0	16.4	9.1	4.3	38.6	22.9	1.6	1.7	0.1	0.2	0.7	4.5

자료 : 통계청

나. 초고령화 사회 대비 산림교육 분야 노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

- 65세 이상의 인구수 및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1년 고연령 인구비율이 13.4%에서 '30년에는 29.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11	2015	2018	2020	2030	2040	2050
인구수(만명)		4,899	4,928	4,934	4,933	4,863	4,634	4,234
65세 이상	인구수(만명)	656	773	869	948	1,439	1,945	2,228
	비중(%)	13.4	15.7	17.6	19.2	29.6	42	52.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 평생학습 참여 : ('08) 26.4% → ('09) 28.0% → ('10) 30.5%(한국교육개발원)
-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은 시간부족, 근무시간 중복, 기관 접근성 등 다양
- ※ 55~64세의 경우, 기관접근성 및 건강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II. 산림교육의 개념 및 목표

1. 산림교육 개념 및 원칙

가. 산림교육 개념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산림교육법 제2조)

나. 산림교육 원칙

- 통합성 : 다른 산림정책의 교육적 내용과 연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 연속성 :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아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
- 지속성 :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 자발성 : 숲을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

다.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과제 (6)	세부추진과제 (16)
1. 산림교육 활성화 체계 구축	1-1. 산림교육 시설·공간 확충
	1-2. 산림교육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구축
	1-3. 산림교육 전담부서 설치
	1-4. 법·제도 기반 강화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육성·관리	2-1. 산림교육전문가 육성·관리
	2-2. 학교를 통한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2-3. 산림교육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3.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1.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2. 산림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4. 학교 산림교육 기반 강화	4-1.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4-2. 학교 교육과정 내 산림교육내용 강화
	4-3. 교원의 산림교육 역량 강화
5. 사회 산림교육 지원체계 구축	5-1. 생애주기형 산림교육 서비스 강화
	5-2. 사회적 약자 산림교육 서비스 강화
6.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6-1. 산림교육 협력체계 구축
	6-2. “숲으로 가자” 운동 전개

2. 산림교육의 비전과 목표

비 전

숲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녹색복지국가 실현

목 표

▣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치 인식 제고

추진 과제

과 제 1 산림교육 활성화 체계 구축

과 제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육성·관리

과 제 3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과 제 4 학교 산림교육 기반 강화

과 제 5 사회 산림교육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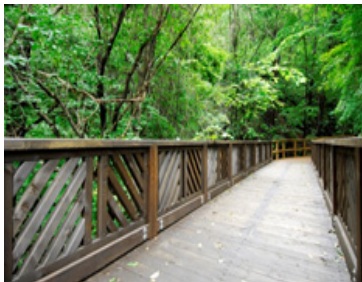
과 제 6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Ⅲ. 산림교육현황

1. 산림교육 시설현황

가. 산림교육센터 조성 현황

- 산림교육센터 사업 범위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 산림교육센터 : 4개소 조성 중('14)
 - 국가 (장성 62억, 청도 165억)
 - 지자체 (부산 30억, 양평 30억)
- 산림교육센터 지정 : 2개소('13.2월)
 - 숲채원 (강원 횡성)
 - 천리포수목원 (충남 태안)



나.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 유아숲체험원 정의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지역별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구분	합계	'12	'13
합계	13 개소	8 개소	5 개소
수도권	2 개소	2 개소	—
강원권	3 개소	1 개소	2 개소
충청권	2 개소	1 개소	1 개소
전라권	2 개소	2 개소	—
영남권	4 개소	2 개소	2 개소

※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157개소('13)

○ 유아숲체험원 조성 계획('14)

- 국가 신규조성 : 8개소
- 도시숲 내 조성 : 4개소 (서울3, 부여1)

다. 숲속수련장 조성 현황

<숲속수련장 현황>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 소 수	25	3	7	3	2	2	4	3	1
	수용인원	1,732	264	639	174	120	50	245	210	30
국립자연 휴 양 림	개 소 수	23	3	7	2	2	2	4	2	1
	수용인원	1,652	264	639	144	120	50	245	160	30
지 자 체 휴 양 림	개 소 수	2			1(대전)				1	
	수용인원	80			30				50	

2. 산림교육 전문가현황

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현황('14)

-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으로는 숲해설가 양성기관 29개소,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5개소,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5개소 운영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개소수	29	5	5

나.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 현황('14)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는 국가와 지자체 각 운영기관에 배치

구 분	총계	국가	지자체
숲해설가	429 명	222 명	207 명
유아숲지도사	20 명	20 명	-
숲길체험지도사	236 명	45 명	191 명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현황('13)

- 2013년 기준 숲해설가 4,084명, 유아숲지도사 47명, 숲길체험지도사 436명이 전문 교육을 수료

구 분	총 발급	'13 발급
숲해설가	4,084 명	827 명
유아숲지도사	47 명	47 명
숲길체험지도사	436 명	103 명

라. 숲해설가 현황 분석¹⁾

- 숲해설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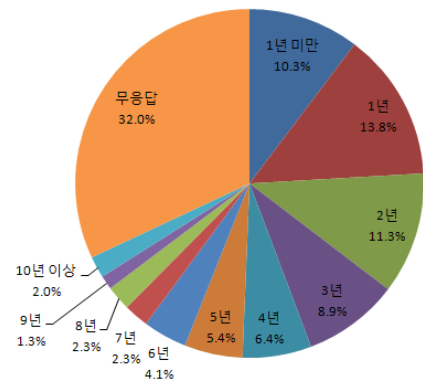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연령 (N=1,422)	20대 : 9 (0.6), 30대 : 44 (3.1), 40대 : 289 (20.3), 50대 : 571 (40.2), 60대 : 465 (32.7), 70대 : 43 (3), 80대 이상 : 1 (0.1)
성별 (N=1,422)	남 : 721 (50.7), 여 : 701 (49.3)
학력 (N=1,422)	고졸이하 : 368 (25.9), 대졸 : 783 (55.1), 석사졸 : 231 (16.2), 박사졸 : 24 (1.7), 무응답 : 16 (1.1)

1) 조사범위 숲해설가 1,402명, 응답률(41%)

- 숲해설가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32.7%), 40대(20.3%)로 나타나 90%이상의 숲해설가가 중·장년층인 것으로 분석됨.
- 숲해설가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여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숲해설가들의 최종학력을 분석한 결과 55.1%가 대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25.9%), 대학원 석사졸(16.2%)의 순으로 나타남.

○ 숲해설가 경력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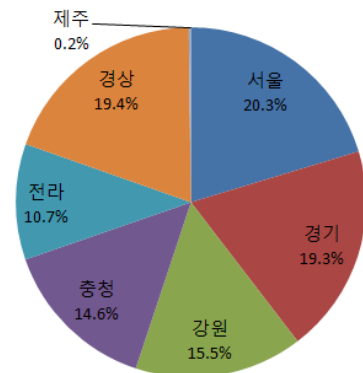
- 숲해설가 경력기간은 1년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년에서 3년 사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숲해설가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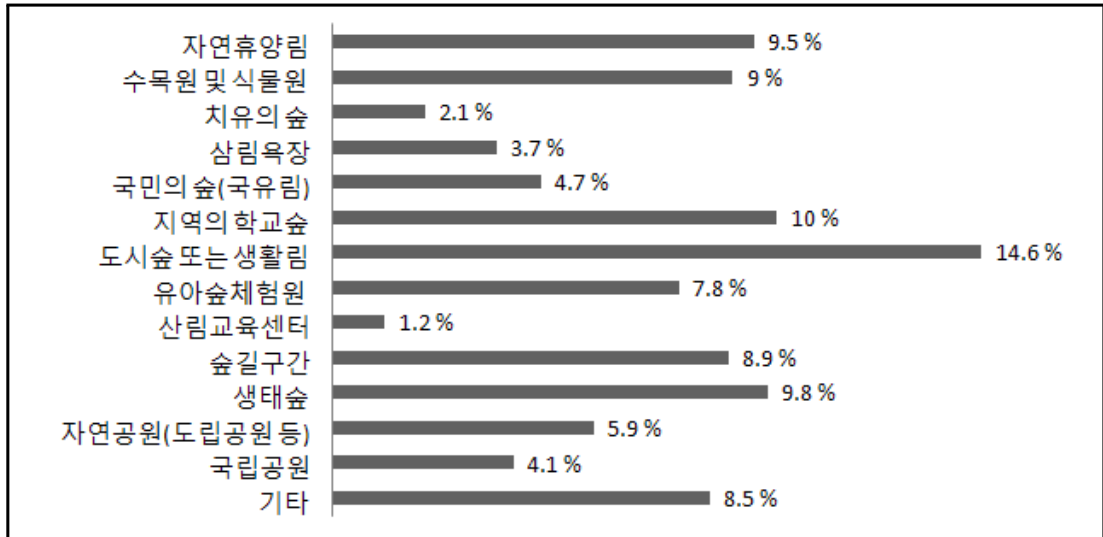
○ 숲해설가 활동지역 (복수응답. 무응답 550명)

- 숲해설가들의 활동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경상이 19.4%, 강원이 15.5%, 충청이 14.6%의 순으로 나타남.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0.2%를 차지하여 숲해설가들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숲해설가 활동지역>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 현장 (복수응답. 무응답 5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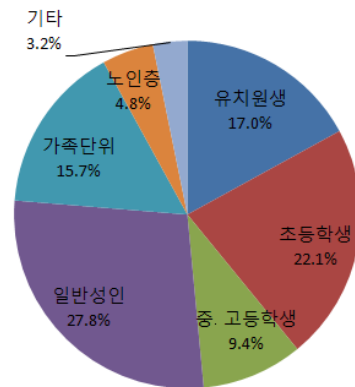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 현장>

- 현재 활동하는 숲해설 현장에 대한 분석결과 도시숲 또는 생활림(14.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의 학교숲(10%), 생태숲(9.8%), 자연휴양림(9.5%)의 순으로 나타남.

- 선호 숲해설 대상 (복수응답. 무응답 51명)

- 숲해설가들의 선호 숲해설 대상에 대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일반 성인이 27.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9.4%로 나타나 노인층을 제외한 다른 선호대상과 비교한 결과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숲해설가의 청소년의 산림교육이 비선호 대상인 것으로 분석됨.



<선호 숲해설 대상>

마. 숲길체험지도사 현황 분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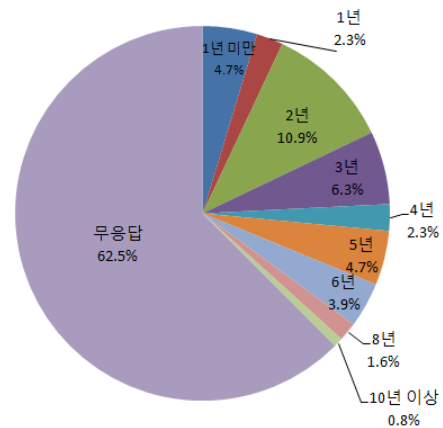
○ 숲길체험지도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연령 (N=128)	30대 : 3 (2.3), 40대 : 26 (20.3), 50대 : 72 (56.3), 60대 : 23 (18), 70대 : 4 (3.1)
성별 (N=1,422)	남 : 102 (79.7), 여 : 26 (20.3)
학력 (N=128)	고졸이하 : 53 (41.4), 대졸 : 61 (47.7), 석사졸 : 7 (5.5), 박사졸 : 1 (0.8), 무응답 : 6 (4.7)

- 숲길체험지도사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0.3%로 나타나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숲길체험지도사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79.7%)이 여성(20.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숲길체험지도사의 최종학력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졸이하(41.4%), 대학원 석사 졸업(5.5%)의 순으로 나타남.

○ 숲길체험지도사 경력기간 (2013년 기준)

- 숲길체험지도사의 경력기간을 분석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면 2년이 1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후 3년(6.3%), 5년(4.7%), 6년(3.9%) 등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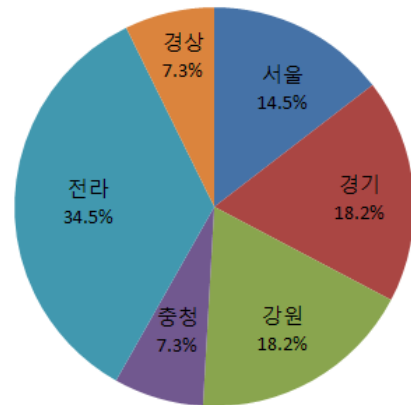


<숲길체험지도사 경력기간>

2) 조사범위 숲길체험지도사 128명, 응답률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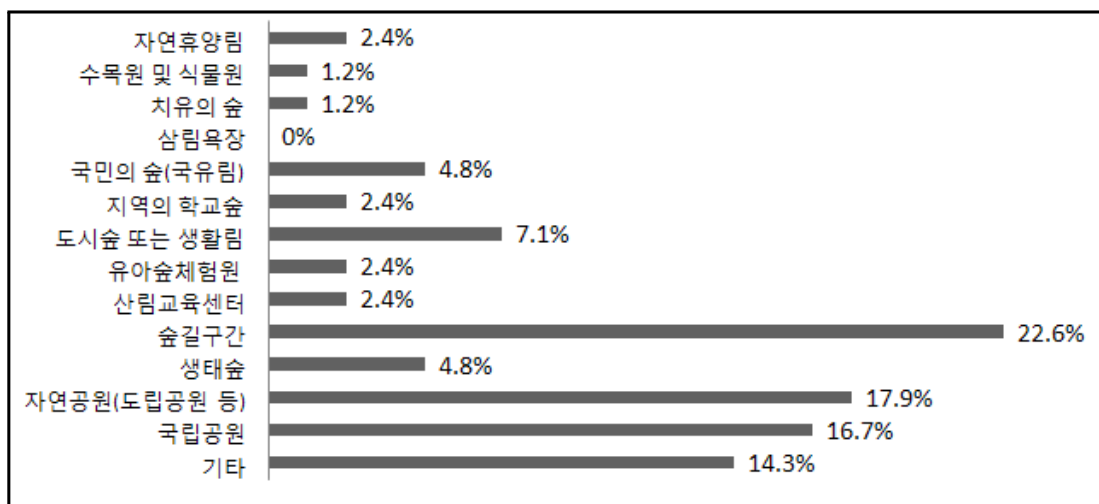
○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지역 (복수응답. 무응답 81명)

- 숲길체험지도사의 현재 활동지역을 분석한 결과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원도 18.2,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가 각각 14.5%, 18.2%로 나타남. 반면에 제주지역에서는 0%로 나타나 숲길체험지도사의 활동지역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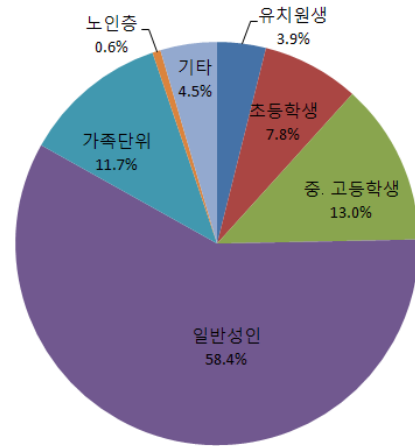
○ 현재 활동하는 숲길 현장 (복수응답. 무응답 86명)



<활동하고 있는 숲길 현장>

- 현재 숲길체험지도사가 활동하는 숲길 현장을 분석한 결과 숲길구간이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공원(17.9%), 국립공원(16.7%)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삼림욕장은 0%로 나타났음.

- 선호 숲길체험 대상 (복수응답. 무응답 11명)
 - 숲길체험지도사가 가장 선호하는 숲길체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성인이 58.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중·고등학생은 13%로 나타나 일반 성인 다음으로 선호대상인 것으로 분석됨. 다만 일반 성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선호 숲길체험 대상>

3. 산림교육 프로그램현황

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림교육프로그램 유형
 - 일반 : 체험형, 공예형, 캠프형 등
 - 특수 : 학교폭력예방, 가족관계회복, 인터넷중독 개선 등
- 산림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10	'11	'12	'13
수혜인원	1,132천명	1,366천명	1,537천명	1,705천명

나. 「숲으로 가자」 3) 프로그램 참여현황

- 연도별 참여인원
 - ('10) 885천명 → ('11) 1,093천명 → ('12) 1,440천명 → ('13.9) 1,166천명
 - ※ 국가 : ('10) 491천명 → ('11) 555천명 → ('12) 721천명 → ('13.9) 429천명
 - ※ 지자체 : ('10) 393천명 → ('11) 538천명 → ('12) 718천명 → ('13.9) 445천명

3) 산림청은 2012년 5월 부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자연사랑과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 연도 · 대상별 참여인원

구분	'10	'11	'12	'13.9.
유아	202천명	316천명	490천명	522천명
청소년	286천명	313천명	398천명	440천명
성인	307천명	361천명	418천명	405천명
고령자	11천명	11천명	21천명	22천명
가족단위	76천명	89천명	111천명	63천명
총계	882천명	1,090천명	1,438천명	1,452천명

※ 계층별 참여인원은 일반 1,141천명(97%)을 제외한 소외계층으로 구성

○ 연도·계층별 참여인원

(단위 : 천명)

구분	'10	'11	'12	'13.9.
일반	818	1,012	1,375	1,428
저소득층	9	8	11	6
편부모	1	1	2	1
다문화	1	4	7	2
장애인	13	17	19	10
기타	43	51	26	11
총계	885	1,093	1,440	1,458

○ 연도·특수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단위 : 천명)

구분	'10	'11	'12	'13.9.
저소득층	202	316	490	522
다문화	286	313	398	440
장애인	307	361	418	405
학교숲	11	11	21	22
학교폭력	76	89	111	63
총계	882	1,090	1,438	1,452

4.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현황

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산림교육 강화

- 초등 1 ~ 고등 1학년 교과서 분석 및 산림관련 내용 수정·보완('07~'09)
 - 교과서 27개 과목 94개 항목 수정·보완 요구(초등 33, 중등 50, 고등 11)하여 13개 항목 반영
- 초등 고학년, 중학생용 산림교과서 및 교과서 집필진을 위한 산림정보자료집 등 개발·보급('09~'11)
 - 초등 산림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11.12.)받아 학교 등에 보급
 - 새 교육과정 교과목에 최신 산림정보가 수록되도록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사, 교사 등에 산림정보자료집 "Forest IQ 200" 제공

나. 학교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산림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년군에 맞는 계층별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 '08년(초등), '09년(중), '10년(유치원), '11년(특수), '12년(고등)
-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숲해설·체험활동 진행
 - 1교 1숲, 방과 후 숲교실, 주말산림학교, 등산교실, 숲가꾸기 활동 등
 - '09~'11년까지 약 75만 명(평균 25만 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

다. 소외계층·위기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숲체험 캠프 운영

- “숲으로 가자!” 운동의 일환으로 교과부·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근절 및 인터넷 중독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53개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등 35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2.12)
-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산림체험·교육활동 지원
 - 숲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을 통해 매년 73천여 명의 소외계층·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산림체험·교육 실시

라. 학교숲 등을 청소년 산림체험·교육의 장소로 활용

- '99~'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자연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숲 955개소 조성
-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 수목원, 목재 체험장 등을 학교 또는 가족단위 산림체험·교육 장소로 활용



<학교숲-인천시 남동구>



<숲체원-강원 횡성>



<치유의숲-강원 횡성>

마. 숲사랑소년단을 통해 학생들의 산림체험 등 동아리활동 지원

- '92년부터 '13년까지 숲사랑소년단원 70만 명 육성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선발	7,098명	2,964명	1,585명	2,549명

- 매년 7~8천명 학생(약 700개교)이 숲사랑소년단 활동에 참여
- 청소년과 지도교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체험위주 활동 지원
 - 나무심기, 어린이숲리더과정, 산림학교, 전국대회, 교사 직무연수 등

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산림교육과의 연계 강화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학생 참여형, 진로탐색 활동 강화,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수업 방식을 운영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교육부장관 업무협약 체결('14.3.11)
 - * 산림청은 산림체험·탐방·학습에 필요한 산림교육·휴양시설과 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등 전문강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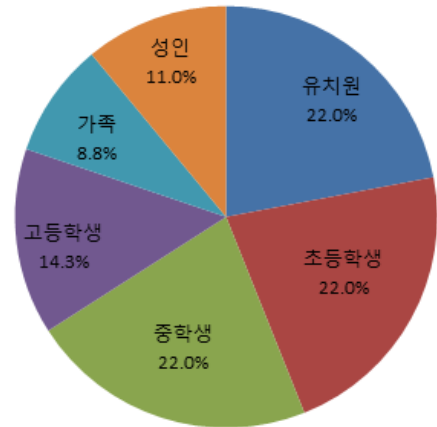
IV. 2014년 산림교육 운영현황 조사 내용

가. 조사대상

- 산림교육을 진행 중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39개 기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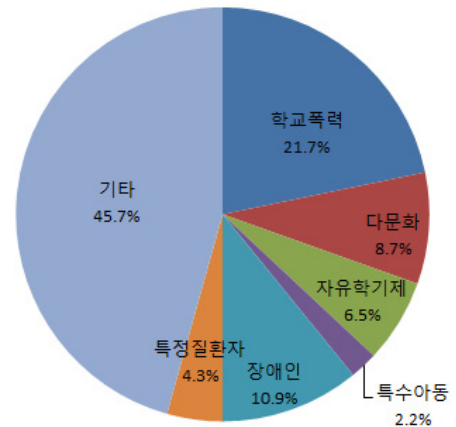
나. 교육 대상 및 특성(복수응답)

- 현재 진행 중인 산림교육 프로그램 분석 결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각 22%를 차지하며 전체의 60%이상인 것으로 분석. 반면 고등학생은 14.3%로 나타났으며, 성인은 11%로 나타남.



<산림교육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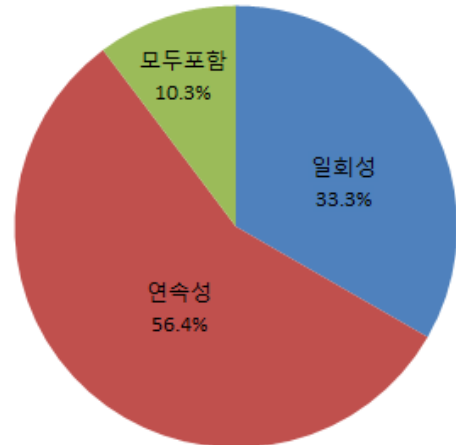
- 산림교육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타의견을 제외한 학교폭력이 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10.9%, 다문화 가정 8.7%의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기타의견이 45.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의견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련한 일반 유아 대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양림 방문객과 가족 단위와 같은 특수한 특성 보다는 일반적 특성을 지닌 대상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산림교육 대상 특성>

다. 산림교육 운영 특성

- 진행횟수와 관련하여 진행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속성이 전체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일회성은 33.3%를 차지하여 연속성이 일회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또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과 연속성 프로그램 모두를 운영하는 기관 역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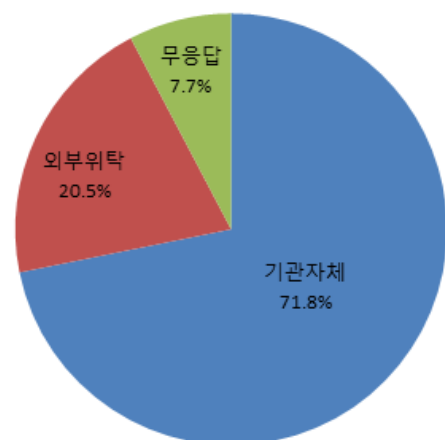


<산림교육 진행형태>

- 산림교육 운영에 있어서 진행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3.2시간의 진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진행횟수는 34회로 나타남. 다만 연속성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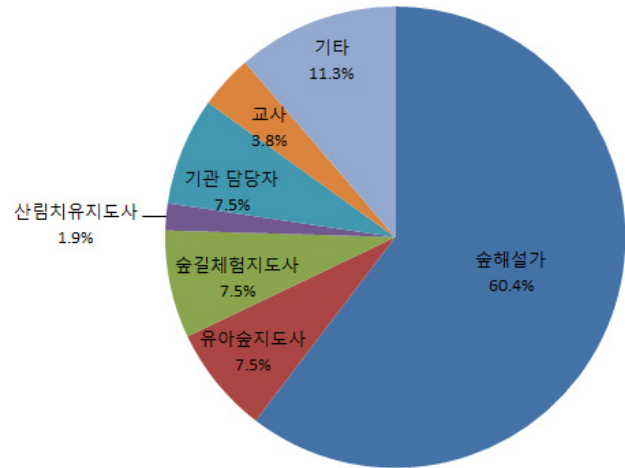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진행 시간	3.2 시간
총 진행횟수	34 회

- 산림교육 진행기관을 분석한 결과 기관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7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부 위탁으로 진행하는 기관은 20.5%를 차지하였음. 위탁기관으로는 (사)강릉생명의숲, 강원대 에코포레스트, 관내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프로그램 운영 주체>

- 산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분석결과 숲해설가를 통한 진행이 60.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숲해설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반면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는 각 7.5%인 것으로 분석됨.



<산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V. 청소년대상 산림교육 활성화 과제

가. 산림(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

- 교육시설이 있는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등이 접근성이 떨어져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부진
- 산림교육을 위한 이동 버스 또는 운송방법 등에 대한 고민 필요
(ex. 국립자연휴양림과 코레일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힐링열차)

나. 산림교육전문가의 청소년 교육 역량 부진

- 주로 숲해설가에 의해 산림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숲해설가들이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 심화교육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방법 등에 대한 내용 보완

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

- 과거 산림교육의 주요대상은 초등학교·유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유아 또는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다수 개발되었으나 중·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미흡
- 청소년전문가와 산림전문가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청소년시기에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시기로 산림 내에서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라. 타부처의 청소년정책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 모색

- 산림교육 영역에서는 산림교육 시설, 진행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인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 청소년들의 산림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진흥 정책과의 연계가 시급함.
- 부처 간의 MOU이후, 부처 간 역할을 구체화한 실행 전략 수립 필요

토론문



**숲 자원, 인력 양성과 배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진단**

임 연 진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

숲 자원, 인력 양성과 배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진단

늦은 오후,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나누는 청소년들의 대화를 듣다가, 욕설 사용에 모두들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고생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가 자욱한 PC방에서 고사리 손으로 키보드를 연신 두드리고 있는 초등학교도 욕설을 퍼붓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상스러운 욕과 은어, 약어가 청소년의 일상을 잠식한지 오래인 상황에서 숲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시연 박사의 주제 설정은 조부모 세대부터 가꾸어 온 숲 환경을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지속가능 이용, 치유 기능, 교육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산림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발표문을 보면 학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노출 등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 그에 따라 주 5일 수업제,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도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가정의 학교 이외의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요'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토요일 자녀관리 또는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는 수요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안으로 '산림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통합성, 연속성, 지속성, 자발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활성화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아·초등부의 산림교육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중·고등부는 비교적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발표자께서 언급한 숲 자원, 인력 양성과 배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진단의 요지이다. 산림교육은 앞의 현황으로 보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발적 참가를 유도하기는 힘든 현실에서 그들을 숲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발표내용 중에서 일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집단이 더욱 체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부족할수록, 자녀에 대한 훈육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관적일수록, 부모와의 친밀감이 낮고 갈등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¹⁾ 가족 단위로 숲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판단되며 그 비용 또한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학교 단위로 참가하여 이동 및 보험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측에도 부담으로 적용되어 지속적 참가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참가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학교 측의 의지, 교육 프로그램의 질,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그의 안전성 등 다각도에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림교육전문가의 청소년 교육 역량 부진 문제 또한 산림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집단은 ‘숲해설가’ 뿐인데, 90% 이상이 중·장년층인 숲해설가와 청소년 간의 세대 차이와 은어,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문제로 심도 있는 교육에 몰입하지 못하고 단순 해설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발표자는 보수 및 심화교육을 제안하였지만, 이 문제는 비단 숲해설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교사도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모든 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 정책 내에서도 숲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의학, 심리상담 등의 전문가 도입이 필수적인데, 숲해설가 1인 체제가 역부족이라면 숲해설가+외부전문가 2인 1조 체제의 산림교육도 시행해 볼만하다.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인 ‘칸막이 허물기’ 산림청,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 협업으로 “유아·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산림교육 지원 및 참여 유도는 훌륭한 부처 간 협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시기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시기이므로 산림

1) 최운선(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2호.

내에서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사교육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씨랜드 화재 사건('99), 태안군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13),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건('14), 세월호 침몰 사고('14) 등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산림교육 여건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들이 산림교육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기청소년 문제 극복이라는 주제는 이제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의 논의를 떠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시간에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즉 산림교육을 통해 끈기 있게 나아가다보면 다른 교육정책과 맞물려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세션 2



숲 프로그램 모델 사례

발표



캐나다 숲 프로그램 사례

전 호 성

(내일신문 기자)

캐나다 숲 프로그램 사례

‘위기의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폭력 가피해자,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의 문제점(입시중심, 획일성, 평가위주 등)과 가정의 문제점(가정과 괴-이혼, 조손, 다문화, 빈곤가정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숲교육’을 제안한다.

2013년 내일신문은 ‘자아 찾기’를 주제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레일과 함께 ‘치유의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¹⁾’를 총 10회 운영하였다. 힐링열차 운영결과 아이들은 교사들의 우려와 달리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치유프로그램에 집중하였으며, 대학생 멘토 활용으로 진로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거나 답을 얻기도 했다.

힐링열차의 주요 프로그램은 뇌교육협회 주관의 명상과 요가, 자연체험 프로그램-만들기와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금체험 1),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교육(금체험 2) 등이다. 그리고 자아 찾기와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찾아주고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열차특강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힐링열차가 운영되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인스턴트를 배제한 친환경 로컬 푸드를 제공하며, 한 끼는 아이들이 직접 밥 짓기를 체험하도록 한다.

힐링열차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른들(교사, 진행자, 멘토)의 간섭을 최대한 줄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팀을 꾸리거나 청소, 프로그램 참여, 식사 등 스스로 활동하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힐링열차를 10회 운영하는 동안

1) 힐링열차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내일신문(2012년 10월 24일자). “컴퓨터게임보다 숲이 더 재미있어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9943

내일신문(2012년 10월 10일자). “학교폭력·인터넷중독·아토피 ... 숲이 치유하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8770

석간내일신문(2013년 6월 3일자). 숲에서 보낸 1박2일, ‘치유와 쉼’의 시간.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7838>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를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내일신문이 운영한 이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범사업으로 소개하고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사업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을 맺고 숲교육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왜 숲교육인가? 숲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태다. 우선 인간의 삶에 숲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숲과 단절된 삶은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경쟁이 최우선인 사회와 달리 숲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장(場)이다.

숲 방문은 생리·심리·정신·운동 효과 등 다양한 치유효과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예방 의학, 만성 질환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숲의 하찮은 식물들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시각체험, 청각체험, 후각체험, 촉각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숲은 성취와 도전의 대상이다. 자연에서 얻은 성취감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최근에는 캠핑치유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북미권에서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숲교육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자리를 잡았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치신 캠프의 숲 프로그램은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대신 숲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1. 캐나다 메치신 캠프²⁾

[캐나다 산림교육 현장을 가다] 청소년 범죄자에 '교도소 대신 숲교육' 판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치신캠프 ... 한달간 야영하며 '사회' 배워-

11월 30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서남단에 위치한 한

2) 본 사례는 전호성 기자(hsjeon@naeil.com)의 취재기사 전문임.

출처: 내일신문(2012년 12월 13일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74386

캠프. 7명의 청소년이 큼지막한 배낭을 메고 인근 숲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숲속에 비박용 잠자리를 마련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곳 메치신 캠프는 주정부 교도소에서 운영하던 농장 11만평을 민간 단체가 위탁받아 청소년 교화캠프로 운영하고 있다. 원시림 안에 마련한 캠프에서는 약물이나 폭력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을 치유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한다.

주정부 판사는 약물이나 폭력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에게 경중에 따라 캠프참여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판결 전 교사와 의사 등 청소년 전문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교도소 대신 '숲 교육'을 받도록 판결한다.

입소자들은 법무부 판결에 따라 26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숲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잠자리와 식사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캠프에는 6명의 교사가 상주하며 교육생들을 도와준다.

하룻밤 자고나면 다른 장소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시림에는 다양한 동물을 비롯해 맹수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다. 캠프 교사는 "가끔씩 사슴이나 곰이 근처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만평 캠프 안에는 긴급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작은 오두막 2채가 있지만, 교육생들이 잠을 자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입소자들이 캠프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자체 공무원, 의사, 교수, 산림청 직원, 자연연구가 등이 수시로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생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캠프 안에는 전문교사 6명이 상주하며 입소자들과 함께한다.

《숲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다》 이날 안내를 맡은 주정부 법무부 직원 고던 어빙(Gordon Irving)씨는 "거의 모든 생활이 숲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교사로 참여한다. 전문직이고 일이 힘들기 때문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연간 4개월만 근무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주정부에서 월 15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입소자들의 교육비용은 무료이며, 모두 주정부와 법무부 교정국이 지불한다.

이 교정캠프는 캐나다에서 단 한 곳으로, 미국이나 다른 주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30여년을 교정국에서 근무한 어빙 씨는 "건물이 좋다고, 힘센 교도관이 많다고 청소년 교정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 청소년은 보통 10일 정도 생활하면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렇다고 교사들이 교육(?)을 하거나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림'을 원칙으로 한다.

입소자들은 자연 속에서 삶을 느끼고 배우는데, 작은 텃밭을 가꾸 교육기간 먹거리를 생산한다.

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카약을 타기도 하며 클라이밍하면서 땀을 흘린다. 이들이 매일 활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청소년전문가들이 만든다.

숲에서 호흡하면서 청소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찾고 느낀다. 서서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싹트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게 캠프 교사의 설명이다.

캠프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캠프를 방문해 마을주민들이나 지자체 공무원 가족 교정국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기도 한다.

이 캠프에서는 1회 80명씩 년 10회 교정교육을 실시한다. 주정부 소년원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숲 캠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하퍼 빅토리아 카문슨대학교 교수는 "교정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생태학 전문가, 산림청 직원,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다"고 말했다.비영리 자선단체인 '아웃워드 바운드 캐나다'를 이끌어 가는 하퍼 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 청소년 교육문제 포럼에 참석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청소년 교육의 핵심은 '반드시 숲에서 진행'한다는 것

과, 자연속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하퍼 교수는 또 "치유와 교육, 레포트를 묶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며 "처벌이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숲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2. 캐나다 파워투비와 아웃워드 바운드³⁾

기부로 청소년치유단체 활성화

- 숲에서 삶의 가치 추구 ...가르치려 하기보다 존중하고 기다려-

컬럼비아 청소년치유프로그램 협회인 파워투비(power.to.be)는 1997년 설립한 청소년 전문 치유기관이다. 지금까지 파워투비를 거쳐간 청소년들은 5500여명에 달한다.

파워투비는 활동비를 전액 주 정부를 통해 지원받는데 대부분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년 16억원 이상 들어온다. 시민들 역시 비영리단체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크다. 이 단체는 캐나다 아동복지 산하기관과 체육부 등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입양가정의 문제도 처리한다.

파워투비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585회나 운영했다. 특징은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숲에서 삶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찾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존경과 통합, 혁신이다. 모두에게 포용과 감사를, 책임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 각자의 능력을 훌륭하게 키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파워투비에서 5년 근무한 캐빈씨는 “숲에 들어가 큰 나무를 안고 인생을 생각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며 “숲은

3) 본 사례는 전호성 기자(hsjeon@naeil.com)의 취재기사 전문임.

출처 : 내일신문(2012년 12월 13일자).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4123&sid=E&tid=2>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로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도 실내생활이 늘면서 컴퓨터나 게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치유단체에서는 학교를 찾아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숲으로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큰 문제없이 참여하게 된다. 시민들도 숲은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숲교육을 전폭 지지한다.

핵심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학교 지자체 교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사회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기다린다. 항상 아이들에게 친절하며 짜증이 나도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게 모든 교사들의 생각이다.

작은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위해 지자체나 대학 교수, 수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한다. 어린이가 암이나 위급상황의 질병의 경우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행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파워투비의 Wilderness School(야생 학교)는 야외 모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리더십 능력개발, 긍정적인 사회 발달과 생활 능력을 키우는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파워투비 직원인 제임스의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만 17년째다. 제임스는 “청소년치유센터 교사 자질은 숲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아웃도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강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자연속에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Outward Bound Canada’역시 비영리 자선성격이 강한 교육단체다. 여행을 통해 야생의 자연에서 리더십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Outward Bound는 1941년 웨일즈 아베르도비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금은 34개 국가 40개 센터에서 수천 명의 사람

들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야생과 도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이제는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비영리 단체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단체는 캐나다의 광대한 숲을 무대로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야생 여행을 추진한다. 교육전문가 자격증에서부터 고교나 대학 학점프로그램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원주민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며 도시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카른슨 대학교 하퍼 교수는 “캐나다 국민들은 삶의 가치를 숲에서 찾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숲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며 “수많은 단체가 기부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도 국민들의 숲에 대한 높은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표



한국 숲 프로그램 사례

조 아 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한국 숲 프로그램 사례

1. 숲 프로그램의 배경

국내 숲 프로그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숲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보다 산림체험 프로그램, 숲 체험 프로그램,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불렸다. 이 때에는 숲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숲체험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숲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숲 프로그램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숲은 인간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동흡(2013)은 숲이 아니라 목재조차도 면역성을 향상시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리로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정신안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했다. 실제로 김은미(2014)는 지역 기반 숲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숲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숲으로부터 편안함, 안정감, 시원함,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나중에는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했다. 체험환경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최아름, 2010). 또한 이정아(2013)는 여러 숲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숲체험 프로그램은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발달, 사회성 증진, 자연친화력 증진,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했다. 조규성(2010)은 6명의 아이들이 숲을 만난 후 나타난 변화를 생명의 소중함, 배려, 책임감, 공존, 관계, 겸손, 자신감, 배려, 우정 등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은 숲을 만나면서 사랑을 배운다고 했다.

숲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청소년에게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숲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중독 치유통합 프로그램 ‘인터넷 어린이 수비대 숲캠프’가 있다(김영훈, 2013).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산림교육으로 치유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청,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

육관광부, 행정안전부,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의 숲 프로그램도 있다(최효정, 2013). 뿐만 아니라 김윤수(2011)나 오창홍, 박상규, 박태수, 오인자(2012) 등에서도 위클래스의 위기청소년이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숙박형 자연체험활동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결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문부성, 2009; 전덕하, 2013 재인용).

한편 숲 프로그램은 관련법의 제정으로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숲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법으로는 2011년 제정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도 부분적으로 숲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2011년 제정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교육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와 같은 산림교육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숲 해설 프로그램이나 숲 유치원, 학교숲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치유의 숲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등산·트레킹 교육 등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미 숲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었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숲 프로그램이 야외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로 수련의 숲을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 장의자, 예술조형물, 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 안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련의 숲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숲 프로그램이 비교적 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숲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활발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숲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 분야 중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숲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숲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본다.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숲 프로그램

국내 숲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청소년 대상 숲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숲 프로그램, 인증 숲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인증, 환경교육인증, 산림교육인증), 기타 숲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숲 프로그램은 인증 숲 프로그램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청소년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도 포함된 청소년단체를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숲사랑소년단

숲사랑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의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이다. 숲사랑소년단에서는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인 ‘친구야~ 숲애가자’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숲해설’, ‘숲 체험 교육 학교 지원 사업’, ‘숲사랑소년단 산림학교’ 등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숲사랑소년단 산림학교의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숲사랑소년단 1박2일 산림학교의 일정

시 간	1 일 차	2 일 차
07:00 ~ 07:30	차량탑승 및 출발 숲체원 도착 (점심은 행사장 도착 전 자체해결)	기상 및 세면
07:30 ~ 08:00		자연과의 만남-아침산책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1:30		우리가 되다(에코엔터테인먼트)
11:30 ~ 12:00		소감문작성/맺는 마당(퇴소식)
12:00 ~ 13:00		점심식사
14:00 ~ 14:30	여는 마당(산림학교 입교식)	집으로
14:30 ~ 15:30	생활안내 (안전교육, 숙소배정)	
15:30 ~ 16:00	우리는 숲사랑소년단	
16:00 ~ 18:00	숲을 만나다(숲해설)	
18:00 ~ 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 ~ 21:00	나를 찾다(야간숲체험)	
21:00~	생활점검 준비 /생활점검	

출처: 숲사랑소년단 내부자료.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인증 프로그램에는 총 9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건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4개 영역에서 숲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26개의 숲 관련 프로그램이 검색된다. 검색된 숲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숲관련 프로그램

인증번호	활동명	주관기관	대상
2234	모험학교 치유의 숲	(주) 보광휘닉스파크	중
활동내용	- 숲의 환경 요소인 경관, 소리, 향기, 음이온, 먹거리, 온도, 습도, 피톤치드의 8가지 정의와 유익함을 배우고, 그중 5가지 이상의 개념을 터득한다. - 전문 숲 치유사와 웃음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자존감 성립을 하도록 한다. - 숲을 통해 영의 스트레스를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통해 육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배려심과 인내심을 키운다.		
1690	숲으로 초대 1박2일 캠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중
활동내용	-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팀원들과 협력하여 배우고 느낀다. - 학교와 가정을 떠나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함께 자연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운다.		
2910	숲에서 놀자-초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초
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숲에서의 추적하이킹, 놀이한마당		
1157	숲을 통해 자라는 청소년 자기성장프로젝트<림林을 보는 리더>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고
활동내용	- 숲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숲에서 만난 우리(리더의 긍정적 자기인식) - 숲 깊이 바라보기: 숲 오감체험, 숲 속 보물 가치관 경매(리더로서의 가치 및 태도 형성) - 숲의 질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사계절의 협상테이블, 숲은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리더의 문제해결방식) - 나로부터 시작되는 칭찬메아리: 칭찬릴레이 뜨거운 의자, 나뭇잎 10장의 쓰임(리더의 비전 찾기) - 숲과 나를 위한 희망다짐: 시간관리 매트릭스, 새로운 시작(림보는 리더)		
3110	유유자적 숲 캠프	(주) 보광휘닉스파크	초
활동내용	- 숲 느끼기: 숲과 오감으로 인사하기, 숲해설가와 함께 숲을 알기, 숲 치유체험 -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며: 희망 소원풍등 만들기		

	- 숲속타잔 되어보자: 안전교육, 장치착용, 짚 라인 탑승 - 숲속의 밤: 팀별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추억만들기: 태기산 관광 곤돌라 탑승, 해발 1,050m 태기산 정상에 위치한 양떼 목장 방문		
3109	유유자적 숲 캠프(고교)	(주) 보광휘닉스파크	고
활동내용	- 숲느끼기: 숲과 오감으로 인사하기, 숲해설가와 함께 숲을 알기, 숲 치유체험 -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며: 희망 소원풍등 만들기 - 숲속타잔 되어보자: 안전교육, 장치착용, 짚 라인 탑승 - 숲속의 밤: 팀별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추억만들기: 태기산 관광 곤돌라 탑승, 해발 1,050m 태기산 정상에 위치한 양떼 목장 방문		
3095	친구야! 숲에서 놀자(중학생 2박3일)	(주) 영남관광개발파래소유스호텔	중
활동내용	- 친구야, 숲에 대해서 알아보자, 친구야 파이팅, 숲에서 놀자 - 친구야, 다 같이 놀자, 자연은 내친구, 우리들의 축제 - 친구야, 가슴을 열어라		
3094	친구야! 숲에서 놀자(초등학생 1박2일)	(주) 영남관광개발파래소유스호텔	초
활동내용	- 친구야, 숲에 대해서 알아보자 - 친구야, 다같이 놀자, 우리들의 축제, 친구야 숲에서 놀자		
2948	물따라 숲따라 자연체험캠프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중
활동내용	- 숲따라걸어요: 숲체험, 농다리트래킹, 자연보호활동 - 명랑운동회: 낙하산달리기, 애드벌룬굴리기, 행복의 구름다리, 사아자공수대작전 - 물따라걸어요: 고무보트체험, 모터보트체험 - 우리배만들기: 만옥선만들기		
2819	달음산 숲체험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초
활동내용	- 숲체험: 숲해설, 숲관찰, 숲놀이, 숲느끼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2763	가을 숲 생태체험학습	까치울푸른문화체험학교	초
활동내용	- 꽃과 풀, 나무, 동물 등 자연에 대한感性 이해 - 식물과 동물, 기후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설 통해 친환경적 품성 키우기 - 자연물 이용한 만들과 놀이 통해 컴퓨터 게임등에 익숙한 정서 자연친화적으로 이끌기 - 자연환경 보존하는 생허활습관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깨닫기		
2762	봄 숲 생태체험학습	까치울푸른문화체험학교	초
활동내용	- 로제트 식물에 대해 알아보기 - 꽃과 곤충체험하기 - 감자심기, 농작물 관찰실시 - 전통문화체험, 숲 관찰 학습실시		
2508	명품 숲체험	화순군청소년수련관	중

활동내용	- 자연의 다양한 식물들이 음식,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고 체험 - 자연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함		
2473	숲속문화 창의체험 한마당	월드유스비전	초
활동내용	- 천연허브방향제 만들기, 미니올림픽, 사계절 잔디썰매타기 - 숲속오감체험, 맨손 미꾸라지잡기		
2060	난대숲愛 배우go 즐기go 쉬go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초
활동내용	-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이해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야간 추적트래킹, 난대림 치유의 숲길 걷기, 성문화 체험 및 교육		
2019	난대숲愛 로그(LOG) 인(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중
활동내용	- 팀별공동체의식의 중요성 이해 및 공동체역량 강화 - 야간추적트래킹, 난대림 치유의 숲길 걷기, 성문화 체험 및 교육 -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모닥불 놀이		
1987	숲 속 미션 캠프	서해안청소년수련원	고
활동내용	- 숲속 팀파워, 팀웍미션, 숲속밤하늘 체험, 숲속 런닝맨, 숲속 힐링미션, 숲속 축제, 숲속 챌린저		
1925	자연아 놀자! 숲속 문화체험 한마당	월드유스비전	초
활동내용	- 놀이로 배우자: 잔디썰매타기, 전통민속놀이, 미니올림픽 - 자연과 나: 숲속 오감체험, 곰돌이 방향제 만들기, 맑은 물 미꾸라지 잡기 - 자연과 놀자: 신나는 레크레이션, 소리감각체험		
1838	라디오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요	세계유교문화재단	중,고
활동내용	- 지역 역사문화 알아보기, 라디오편터링 포인트지점 찾아가기 - 지어문화역사에 대한 퀴즈 풀기, 라디오편터링 미션 확인 및 최종평가		
1782	숨쉬는 숲으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숲체험	초,중
활동내용	- 숲 이해를 위한 숲교육(오감숲체험), 자연친화적 생활을 위한 생태생활용품 공예체험 -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자기주도적 숲속 보물찾기		
1575	미션으로 떠나는 봄숲체험 '에코엔터어링'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중
활동내용	- 봄숲체험활동: 들꽃, 나무, 바람, 식물을 관찰하고 오감체험하기 - 봄곤충채집: 곤충알고 육상곤충과 수상곤충 채집, 생태그들의 이해, 자연놀이 - 에코엔터어링: 오리엔티어링실습, 에코엔터어링 미션교육, 엔터어링 경기 실시		
1413	숲 속 동화이야기 4림(林) 4색(色)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초,중,고
활동내용	- 녹색자연과 친해지길 바래: 숲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기, 숲에서 자라는 풀, 꽃, 나무, 곤충이해하기 - 녹색자연과 교감하길 바래: 숲의 다양한 꽃과 곤충, 풀, 나무 관찰하기 - 식물의 뿌리 조사하고 살아있는 뿌리와 죽은 뿌리찾아보기, 중량나들이숲의 살아있는		

	뿌리와 죽은 뿌리 찾아보기		
1408	오감으로 떠나는 숲속여행	녹색사업단	중
활동내용	- 백두대간에 살고 있는 동식물 이해하기 - 나무의사되기: 나무심장소리듣기, 나무진찰나이 알아맞히기, 나무수술하기, 나무주사알약주기, 통나무냄비받침대만들기 - 오감빙고: 숨은색깔찾기, 만진 것 표현하기, 숲의 향기, 자연이 내는 소리, 숲속 미인대회,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 새집줄게,헌집다오: 조류습설, 생태알아보기, 새집만들기, 새집꾸미기 새집달기		
1295	우리는 중랑숲나무바라기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초,중,고
활동내용	- 숲은 생태전반에 관련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지적호기심 충족 - 숲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연과의교감형성 - 숲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 인지 및 생태지킴이 역할 수행		
544	와글와글 숲놀이	안산시청소년청소년수련관	초,중
활동내용	- 숲 알아보기, 숲 체험놀이, 공작활동		
253	숲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초, 학부모
활동내용	- 숲걷기: 가족별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 가족시간: 사전에 가족들이 준비하여 자유롭게 가족만의 시간 진행 - 우리가족힐링타임: 숲 보물찾기, 마음나누기(속 마음 말하기), 우리가족 끌어안기(교감활동)		

출처: [http://yap.youth.go.kr/yap/cta/certi/list.do\(2014.5.13.\)](http://yap.youth.go.kr/yap/cta/certi/list.do(2014.5.13.))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인증을 받은 26개 프로그램 중에서 인증번호 제2234호 ‘모험학교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험학교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나눔과 배려, 모험정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박3일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일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중에서 치유의 숲(2) “숲 탐구 올림픽”은 숲 느끼기 시간에서 배운 동식물을 스스로 찾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오리엔티어링의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팀별로 동식물 사진 카드를 주고 주어진 시간 안에 카드 속의 동식물 사진을 찍어 도착하면 카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하게 된다.

<표 3> 모험학교 치유의 숲 프로그램의 2박 3일 일정

시 간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 08:00		기상	기상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 10:00		포레스트 어드벤처	아쿠아 테라피 '블루 케니언'
10:00 ~ 11:00			
11:00 ~ 12:00	입소식		
12:00 ~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00	스트레스 지수 검사	치유의숲(2) '숲 탐구 올림픽'	퇴소식/소감문 작성
14:00 ~ 15:00	치유의 숲(1) “숲 느끼기”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추억만들기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웃음치료	숲 속의 밤 - 팀별 장기자랑 - 레크리에이션	
20:00 ~ 21:00			
21:00 ~ 22:00			
22:00 ~	취침	취침	

출처: 보광 휘닉스파크 내부자료.

한편, 프로그램명에 숲이 포함되지 않아서 검색되지 않은 프로그램 중에도 숲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인증번호 제988호인 ECO 상상천국 캠프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ECO 상상천국 캠프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자연·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역량, 리더십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2박3일 프로그램이다.

<표 4> ECO 상상천국 캠프 2박3일 일정

시 간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		기상 및 아침산책	
07:30 ~		아침	
09:00 ~		자연과 친해지기 -삼림욕, 숲해설, 숲놀이	자연과 약속하기 -작품발표 및 공유, 피드백
10:00 ~			맺는 마당
11:00 ~			
12:00 ~		점심	
13:00 ~		휴식시간	
13:30 ~		이동(수련원⇒오대산)	
14:00 ~	도착 및 접수	자연과 함께하기 (오대산 천년의 숲) -숲 생태 탐사활동	
15:00 ~	만남의 시간 (여는 마당, 생활안내)		
16:00 ~	숙소배정 및 휴식		
16:30 ~	에코 티셔츠 만들기		
17:30 ~		휴식시간	
18:00 ~	저녁		
19:00 ~	자연 속 보물찾기 -자연·환경에 대한 개념 이해	내가 그린! Green!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자연, 환경의 모습 표현하기	
20:00 ~			
21:00 ~	취침준비		
22:00 ~	취침		

출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내부자료.

3)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받은 국가인증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http://www.keep.go.kr/portal/board/view.act?boardId=news&atclNum=20097¤tPage=1>, 2014.5.13.). 환경교육에는 물, 공기, 생태, 자원재활용, 환경보전, 인간·경제,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7개 영역이 있다. 환경교육에서는 숲 프로그램만을 다루지 않지만 숲이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숲 프로그램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 235개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에서 실외체험형의 숲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용은 9개, 중고생용은 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keep.go.kr/portal/auth/search.act?>, 2014.5.13.). 그러나 풀빛숲학교와 같이 대상이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아 실제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에서 숲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숲관련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활동명	주관기관	대상
2013-86	숲사랑소년단 산림학교	산림청, 숲사랑소년단	초 3-6
활동내용	- 숲이야기, 나이트워크, 에코엔티어링		
2011-5-15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생태교실	(사)행복한 숲	초 1-2
활동내용	- 학년별 주제에 맞는 숲 탐구활동을 한 후 몸으로 표현해보고, 생태놀이를 통해 생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방식 - 탐구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나눔활동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의 통합적 프로그램		
2013-92	풀빛숲학교	풀빛문화연대	5-12세
활동내용	3월-봄의 숲, 다시 초록빛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냈어요 4월-꽃! 너를 알고 싶어, 곤충과 꽃의 관계는? 5월-바람아! 불어다오, 숲속의 길을 찾아보자 6월-나무의 나이를 재어보자, 여름 숲 속 이야기 7월-나만의 정수기를 만들어보자, 탄소발자국을 알아보자 8월-물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비 온 뒤의 숲 속 잔치 9월-바위가 흙이 되었어요, 식생 조사를 해봐요 10월-식물의 여러 가지 색이 궁금해요, 새들을 불러 보아요 11월-숲 속의 열매를 찾아보자, 식물들과 동물들의 겨울살이 12월-동물들의 흔적과 겨울나기, 우리들은 자연의 친구 약 18회기로 수업 진행		
2013-63	생명의 숲 청소년 숲교실 '나와 너를 만나는 숲'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초3-6
활동내용	- 숲생태계를 소재로 놀이와 연극형식을 통하여 숲체험 활동을 진행. -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친구의 성향, 꿈 등을 파악하고 표현하며 공유함. - 숲을 창의적, 주도적, 협동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적 지혜를 고양함.		
2013-40	숲체험여름학교-그린캠프	유한킴벌리	초3-6

활동내용	- 숲과 대기 : 지구온난화, 숲의 광합성, 대기 중 먼지측정 - 숲과 물 : 산림수질 및 특성, 물속 생물, 수질정화 과정 - 숲과 토양 : 숲 토양 생성, 구조 및 능력, 녹색댐 - 숲과 나무 : 오감을 통한 나무체험, 나무이름 및 특징 - 숲 다양성 : 숲의 밀도, 구조, 숲속 경쟁자 - 숲 표현 : 역할 연기의 이해		
2013-31	야생화 향기와 함께 떠나는 만수굴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 공원사무소	중고생
활동내용	- 프로그램을 통해 동식물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이해 및 국립공원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2012-7-18	백두대간 생태 체험학습	(사)백두대간보전회	중고생
활동내용	- 백두야 놀자: 종의 개념을 확립하고 식물의 특징과 예를 알고 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 -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서: 백두대간에서 시작되는 물의 수계를 이해하고 물의 소중함과 오염에 대한 고민 - 백두대간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원시지구의 형성과정과 환경 교육,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지질현상과 판의 운동 교육 - 도강산맥 구문소: 우리나라 지질의 특성과 주요지하 자원에 대한 교육		
2013-18	지리산이 품은 아름다운 대원사 계곡 이야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초3-6
활동내용	- 대원사 사찰의 식생 해설 및 국립공원 소개 - 대원사 사찰 해설 및 우리나라 불교의 이야기 - 대원사 계곡에서 자연의 신선함을 체험(산림욕, 환경교육)		
2012-6-18	노고 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초3-6
활동내용	- 국립공원의 의미알기와 관계형성, 노고단의 변화과정과 훼손과 복원이야기, 노고단복원 이야기, 반야봉과 산봉우리이야기 - 과거의 잔해 군부대, 아고산생태계의 특징과 의미알기, 노고단의 생명만나기(구상나무, 노고단의 관목) - 섬진강조망대에서 만나는 계곡과 경관(섬진강, 피아골, 화엄사 등) - 노고단정상돌탑이야기, 지리산주능선만나기, 지리산국립공원OX퀴즈		
2013-73	하나의 길 두 개의 숲과 함께하는 명상체험	설악산국립공원	초3-6
활동내용	- 숲 체험을 통해 숲의 발생과 성장, 화전민 흔적 찾기, 야생화 관찰, 비오톱, 덩굴식물, 활엽수림, 소나무 숲, 청정 계곡수에 대해 이해		
2013-30	숲속에 내 몸을 던져라!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초3-6
활동내용	- 숲의 역할과 기능 알아보기, 생강나무와 식물 이름 지어보기, 깃대종 소개(히어리와 반달가슴곰, 발자국 뜨기 관찰), 새 소리 들어보기 및 자연의 소리듣기, 굴참나무의 쓰임과 아픔 알아보기, 숲의 다양성과 천이과정 알아보기		

	- 자연놀이: 도토리야 굴러라!, 자연다트!, 거울로 새와 뱀 되어보기, 피톤치드 마시기 - 계곡 친구 만나보기: 계곡에서 수서생물 찾아보기, 도감 및 자료를 통해 이름 알아보기, 수서곤충카드 기억 게임 - 자연을 보호할 생활 속 실천 찾기		
2013-23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덕유산국립공원	초3-6
활동내용	-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아고산대 기후 특징 소개, 아고산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 이야기, 아고산대에 살고 있는 한국 특산종, 아고산대에 살고 있는 야생화 이야기, 아고산대 생태지도 만들기(계절에 따른 해설주제 변경) - 개발의 손길 속에 위기를 맞은 아고산대		
2012-7-21	오솔길 따라 숲 속 탐험	설악산국립공원	중고생
활동내용	- 설악산국립공원의 지형지질, 나무, 새, 야생동물, 계류생태 등 다양한 자원을 만날 수 있는 비룡폭포 숲 이야기 - 자연 속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상적인 숲의 모습을 가진 설악산의 특별한 이야기		
2012-6-21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Green Trail 여행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중고생
활동내용	- 테마1(숲속의 공간) : 스트레칭, 호흡법, 하늘보기, 정체운동, 감성능력 상태 테스트 등 동적, 정적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친근감 유도 - 테마2(사색의 공간) : 시낭송, 편지쓰기, 자연 속 느낌 나누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감성 자극 및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테마3(명상의 공간) : 참여자에게 명상 자세 및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자연 속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을 정화시키고 자연의 편안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		
2011-5-9	아낌없이 주는 서울숲	서울숲사랑모임	중고생
활동내용	자연체험, 놀이, 가드닝		
2011-4-9	금강모치가 살고 있는 구천동계곡 이야기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중고생
활동내용	- 금강모치가 살고있는 무주구천동 계곡이야기: 금강모치의 터전과 금강모치 소개, 금강모치가 사는 계곡 주변의 습지식물과 수서생물 이야기, 함께 사는 이야기 '공존' 해설 및 체험, 금강모치 자연놀이		
2011-4-14	다람이 집에 놀러가자(숲체험)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중고생
활동내용	- 숲 체험 이론교육 - 다람이 집에 놀러가자(숲 체험): 숲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규칙 - 숲의 주인은 누구, 숲이 주는 혜택, 숲은 어떻게 변할까, 바위 위에서 함께 살아요, 꽃과 줄기, 뿌리와 잎, 열매와 씨앗, 숲 체험에 대한 느낌		

2011-4-11	평돌이와 함께하는 치악산 정글탐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중고생
활동내용	- 환경지표종 이끼 생태관찰금강소나무에 얽힌 이야기와 소나무 구별하기, 숲속 피톤치드 마시며 전나무숲길 도보이동, 거울에 비친 하늘을 보며 걷기/맨발로 오감 느끼기, 숲속명상/숲속체조, 멸종위기종 구렁이 증식장 관람, 멸종위기식물원 관람, 지끈으로 구렁이 만들기 공예체험 - 화전민 되어보기(숯 체험, 새끼줄 꼬기)/화전민 인형극 체험		

출처: <http://www.keep.go.kr/portal/auth/search.act?>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중에서 사회적 기업 풀빛문화연대에서 운영하는 풀빛숲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도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이 숲에서 놀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숲체험 활동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표 6> 풀빛문화연대의 풀빛숲학교 프로그램 내용

순번	시기 (월)	주제	프로그램
1	3	입학식(첫만남)	숲학교의 시작을 알리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숲학교 장소에 대해 알아본다.
2		겨울을 지나온 새싹들의 살아가는 방법	겨울을 지나고 싹을 틔우는 새싹을 관찰하고 강인함을 배운다.
3	4	나무의 중요성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나무의 특성을 배운다.
4		꽃의 중요성	꽃의 구조와 역할을 알고 번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5	5	숲이 주는 고마움	숲이 주는 고마움을 알고 다양한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6		전래놀이	모둠원들과 다양한 놀이를 하며 또래의 관계형성을 한다.
7	6	나만의 숲 지도 그리기	숲 탐험을 하며 능(지역 숲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지도 익히는 법을 알아보자.
8		나무에 대해 알아보자.	식물의 구조를 알고 나뭇잎의 역할을 알고 광합성을 배운다.
9	7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아보자.	강의 식생을 알아보고 물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10		숲학교 친구들이 모두모	각 지역 숲학교 친구들이 모여 캠프를 떠나요(숲체험, 농산촌 체험).

		여(캠프)	
11	8	서서생물을 통해 배워보는 생태계	물속의 생물을 관찰하고 수서생태계를 배워보자.
12		매미와 곤충의 생활	다양한 곤충의 종류와 생활을 알고 매미의 한 살이를 살펴본다.
13	9	우리 문화 이해하기	신나는 전래놀이와 만들기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
14		곤충과 버섯	곤충의 특징을 알아보고 버섯이 하는 일과 종류를 알아본다.
15	10	숲속 음악회	숲속 음악회를 통해 풀피리 연주 등 생태문화를 함께 나눈다.
16		단풍잎과 열매	열매의 여러 가지 번식방법을 알고 가을의 변화를 느껴본다.
17	11	지구환경	숲과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18		겨울눈	내년을 준비하는 나무의 겨울눈을 관찰하고 세밀화로 표현해 본다.
19	12	새의 친구가 되어요.	새의 특징과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알고 장릉에 살고 있는 새들을 탐조한다.
20		수료식	숲속에서의 사계절 체험을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정리한다.

출처: 풀빛문화연대 내부자료.

또한, 숲사랑소년단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친구야~숲愛가자!라는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박2일의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숲체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미래사회의 녹색 리더 양성과 숲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친구야~숲愛가자!에서는 생각의 숲, 창조의 숲, 어울림의 숲이라는 3개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생각의 숲은 숲을 알고, 배우고, 느끼는 오감 체험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아발견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창조의 숲은 숲속의 작은 소리들을 들으며 자연에 대한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자기성찰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리고 어울림의 숲은 숲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나와 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성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7> 친구야~숲가자! 1박2일 프로그램

시 간	1 일 차	2 일 차
07:00 ~ 07:30	차량탑승 및 출발 숲 도착 (점심은 행사장 도착 전 자체해결)	기상 및 세면
07:30 ~ 08:00		자연과의 만남-아침산책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1:30		어울림의 숲 (지역특성 숲체험 등)
11:30 ~ 12:00		소감문작성/맺는 마당(퇴소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집으로
14:00 ~ 15:30	여는 마당 (숲사랑학교 입교식) 생활안내 (안전교육, 숙소배정)	
15:30 ~ 16:00	우리는 숲사랑소년단	
16:00 ~ 18:00	생각의 숲 (숲오감체험)	
18:00 ~ 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 ~ 21:00	창조의 숲 (나이트워크/목공예 등)	
21:00~	생활점검 준비, 생활점검	

출처: http://www.greenranger.or.kr/main/sub03_1_v.php?bConf=2&condition=&menuBid=&menuSid=&page=1&sid=339&words=, 2014.5.17.

4) 산림교육 인증프로그램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산림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질 높은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교육,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산림청에서 인증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30일 현재 9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산림교육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프로그램명칭	인증기관	참가대상
산림교육 - 2014-01	숲으로 go! go! go!	(재)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중 · 고
활동내용	달빛명상, 숲이야기 등의 정적인 활동과 가지치기, 통나무 자르기, 미션 林 possible 등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		
2014-02	꼬물 꼬물 새싹이 돋아나요	북부지방산림청	유아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3	우와~ 여름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유아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4	야호~ 숲으로 가자	홍천국유림관리소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5	안녕 숲 속 친구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6	숲은 창조의 샘	인제국유림관리소	유아 포함 가족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7	나무의사되기	(재)녹색사업단	초
활동내용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며, 가족들과 함께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14-08	신나는 초록교실	국립수목원	초등학교 고학년
활동내용	- 자연관찰: 자연의 비밀을 찾아라 - 자연관찰&체험활동: 광릉숲 곤충탐험대 - 자연관찰&체험활동: 시크릿가든-수생식물원의 비밀 - 탐구활동: 숲에게 작별인사하기		
2014-09	신나는 초록상상	국립수목원	유아
활동내용	국립수목원 인근지역 공사립유치원기관 중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연간 참여하는 장기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출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산림청, 신나는 초록교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8건 인증- 보도자료 (2014.4.30.)

이 중에서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신나는 초록 교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나는 초록 교실은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숲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나는 초록교실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표 9> 신나는 초록교실 일정표

진행시간	진행내용	교육내용
교육시간 : 5시간(식사시간 제외)		
10:00 ~ 12:00 (휴식시간 15분)	자연의 비밀을 찾아라!	자연학습
12:00 ~ 13:00	점심식사	식사, 동료 교감
13:00 ~ 14:30 (휴식시간 15분)	광릉숲 곤충탐험대	체험활동
14:30 ~ 15:30 (휴식시간 15분)	시크릿 가든: 수생식물원의 비밀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
15:30 ~ 16:00	숲에게 작별인사하기-고마워! 숲친구야	느낌나누기, 설문지 작성, 숲에 대한 지식정리

출처: 국립수목원(2014). 산림청 인증 교육프로그램 신나는 초록교실.

<표 10> 신나는 초록교실 단위 프로그램

구분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개요
1 단계	체험 (120분)	자연의 비밀을 찾아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연을 관찰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다른 생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운다.	자연을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과 답을 통해 알아보고, 숲에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경험해본다. 이를 통해 숲에 사는 생물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소중함을 일깨워본다.
2 단계	체험 (90분)	광릉숲 곤충탐험대	곤충의 특징과 지구상에서 곤충이 번성한 이유를 알아보고, 숲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다른 생명체들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숲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하고, 곤충 주사위놀이, 곤충 생태지도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숲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곤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3 단계	체험 (60분)	수생식물의 비밀	육지식물과 다르게 진화해온 수생식물의 생존전략과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배워본다.	여름이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수생식물에 대해 관찰하고, 조사함으로써 수생식물들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4 단계	이론 (30분)	고마워! 숲친구야(마무리)	참여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본다.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느낌과 숲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정리하고 메시지 등으로 남긴다.

출처: 국립수목원(2014). 산림청 인증 교육프로그램 신나는 초록교실.

<표 11> 신나는 초록교실 단위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운영번호	[자연관찰]		
프로그램명	자연의 비밀을 찾아라!		
운영시기	6월-7월(여름철)	소요시간	2시간(120분)
소요인원	진행 2명, 참여자 30명 내외	교육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준비물	관찰일지, 필기도구, 클립보드		
체험목표	• 자연을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과 답을 통해 알아간다. • 숲에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경험해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다. • 자연을 관찰일지 형식으로 작성해봄으로써 다른 생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운다.		
도입	• 인사하기 - 몰입하여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 8초 몰입하기 → 1분 몰입하기 → 3분 몰입하기 순으로 진행한다.		
전개	• 모듬 나누기 - 4개의 모듬으로 나누고, 각 모듬장을 정한다. - 모듬원은 개별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모듬장은 모듬원의 활동지 취합과 토론을 진행하여, 발표한다. • 관찰일지 작성 - 개인별 관찰일지를 작성한다. - 전체 활동지를 작성한다. (모듬원 모두 함께 작성) -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각 모듬장이 대표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 의견 나누기 - 가장 감명 깊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기타 참고사항	모듬명: _____ 이름: _____ ☺ 주위를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자연물 한 가지를 정하세요. ☺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 자연물을 자세히 그려보세요. ☺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만들어보세요.  국립수목원 Korea National Arboretum
	☺ 개인별 관찰일지 - 주위를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자연물 한가지를 정하세요 -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 자연물을 자세히 그려보세요 -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 모듬별 관찰일지 - 모듬원의 질문을 적어보기 - 모듬원이 질문에 대한 토론 후 답을 찾아보기 - 해결 못한 질문이나 모듬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 질문 한가지 적어보기

출처: 국립수목원(2014). 산림청 인증 교육프로그램 신나는 초록교실.

5) 기타 숲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기타 청소년 대상 숲 프로그램

활동명	주관기관	대상
청소년 힐링캠프 숲에서 나를 찾다	순천시(건강증진과), 좋은 친구들(비영리민간단체)	고등학생
활동내용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학교폭력,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부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활동내용	열매의 이동과 나무의 겨울나기, 곤충과 친구되어보기, 열매와 놀아요, 겨울맞이 준비하는 숲속 친구들, 숲속여행, 오감체험 오리엔티어링, 자연과 하나되어보기, 숲에서 놀자, 모니터링을 통한 숲체험 등	
아웃도어 페스티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유아동반가족, 청소년관련 기관 등
활동내용	- 공동활동: 하늘썰매, 스포츠 클라이밍, 국궁, 에코산책(가족모닥불), 가족 오리엔티어링, 감성시인 윤보영 시 낭송회 - 봄철활동: 숲해설, 숲요가, 숲공예, 전통시장탐방, 견지낚시 - 여름활동: 견지낚시, 레프팅, 승마, 수중풋살, 슬라이드수영장, 가족야영, 맨발살림욕, 천체관측 - 가을활동: 생물다양성 체험활동, 어쿠스틱공연, 토크콘서트, 업사이클링, 연날리기 등	
자연생태 프로그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
활동내용	자연산행, 에코엔티어링, 숲놀이, 자연산책, 천체관측, 산림욕, 트레킹, 풀잎요가, 천년의 기다림(오대산), 자연공작, 자연생태공작(Eco-Ucc), 퍼즐숲, 숲아 들어볼래?, 자연 美 티셔츠, 자연동화, 에코파노라마, 달빛기행(1박2일) 등	
힐링 열차 (코레일 KTX 연계) 등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소	일반
활동내용	열차와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을 결합한 상품으로 비수기 주중(매주 수, 목요일)에 1박 2일로 이용할 수 있다. 열차와 자연휴양림 숙박을 결합한 '개별여행상품'과 열차와 자연휴양림 숙박 외에 지역관광까지 포함하는 '버스연계상품' 두 가지로 구성	

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숲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부속기구로 2008년 학교기업 지원 사업 선정(교육부 소속, 학교기업 중 숲 사업은 유일함)된 에코포레스트에서는 자연체험활동 산책로, 자연물체험활동인 주말 산림학교, 숲사랑캠프, 숲해설 등 다양한 숲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ecoforest.co.kr/sub03_0101.php, 2014.5.17.). 또한 숲속창의력학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숲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http://dfcs.or.kr/sub1_1.php, 2014.5.17.).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은 시각장애청소년, 청각장애청소년, 지적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저소득층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청소년생태환경동아리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 2010). 이 중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모두 4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A타입의 1회기는 흙에서 땡굴땡굴, 2회기는 곤충이랑 꿈틀꿈틀, 3회기는 나무 안고 쭉쭉쭉, 4회기는 씨앗의 여행과 로제트 식물의 겨울나기이다. 다음의 <표 13>은 A타입의 1회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표 13>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A타입 1회기의 내용

체험명	흙에서 땡굴땡굴		진행일자	2010.09.25.토
			진행시간	총 6시간
목표	• 흙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다. • 버섯의 역할을 안다. • 흙속의 사는 생물의 역할을 안다.		지도력	지도자 2명 강사 2명
개요	• 숲에서 나뭇잎의 분해과정을 직접관찰하며 흙의 생성과정을 이해하고, 흙속의 생물을 관찰한다. 버섯과 균사를 찾아 관찰하고 역할을 알도록 한다.			
참가대상	• 저소득층청소년 16명, 일반청소년(멘토) 3명			
준비물	• 체, 루페, 흰 보자기, 활동지, 찰흙, 가위, 색연필, 매직 등			
단계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도입 (친해지기)	30분	• 수련관 도착 • 설문지 작성 • 관계형성: 인사나누기 및 프로그램 소개		생태탐방센터
전개 (체험활동)	90분	• 흙의 토양 단면 만들어보기 - 흙의 토양을 모종삽으로 퍼서 관찰하고 조가기 위에 총		원미산 및 생태탐방센터

		별로 올려보기 - 숲의 토양 형성과정 설명하기 흙 속에 사는 생물 관찰 - 보자기 위에 숲의 흙을 체로 쳐서 생물들을 찾아보고, 루페로 관찰 - 흙속에 사는 생물들을 이야기 해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기 • 버섯은 어디에 있을까? - 낙엽 밑에 균사를 찾아 관찰해보고, 활동지에 관찰한 버섯 기록하기	
식사	60분	• 맛있는 점심식사	식당
전개 (체험활동)	90분	• 흙 던져내기 놀이 - 산에서 퍼온 흙을 쌓고 꼭대기 깃발 세우기 - 모둠끼리 조금씩 흙을 던져내어 먼저 깃발을 쓰러뜨리는 팀이 패함 • 비석치기 전래놀이 - 흙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위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전래놀이 비석치기를 통해 돌맹이를 가지고 놀기 • 찰흙으로 장승 만들기 - 찰흙으로 얼굴 모양을 만들고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해 장승을 만들어 나무줄기에 붙이기	원미산 및 생태탐방센터
마무리 (정리)	30분	• 정리정돈 및 활동소감 나누기	생태탐방센터
평가	60분	• 평가회의: 강사, 지도자와 평가 실시	생태탐방센터
비고	• 50분 프로그램 후 10분 휴식 • 진행 및 분위기에 따라 순서가 다르게 체험될 수 있음		

출처: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2010).

3. 청소년 대상 숲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전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는 숲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숲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숲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게임중독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숲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일선학교와 1교 1숲 또는 방과 후 숲교실을 맺고 국공유림, 자연휴양림을 야외 체험학습공간으로

제공(1교 1숲 47개소, 방과 후 숲교실 25개소 운영, 2011년), 대학, 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도시지역의 소외계층, 장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주말 산림학교 개설 운영(2012년 서울, 부산, 충북, 강원대학교 4개소 운영), 교육청, 일선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고 산림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 중독치유 캠프를 운영,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초등 산림교과서 서울시 교육청 인정, 2011년 12월)와 같은 숲 프로그램 관련 활동들이 강화되고 있다(전덕하,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했으나 공개된 숲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수집된 숲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시하고는 일정표 제시의 수준이어서 심층적인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숲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이나 산림교육에서는 주로 숲과 관련된 지식이나 숲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청소년분야에서는 숲관련 지식과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즉, 환경교육이나 산림교육에서는 숲이 목적이 되는 반면 청소년분야에서는 숲이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수목원(2014). 산림청 인증 교육프로그램 신나는 초록교실.
- 김영훈(2013). 인터넷중독 치유 프로그램,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모색, '청소년문제와 산림교육' 세미나, 51-80.
- 김윤수(2011). 숲치유 프로그램이 WEEclass 중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2014). 지역 기반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들의 숲에 대한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진(2013). 문제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효과,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모색, '청소년문제와 산림교육' 세미나, 105-113.
- 보도자료(2012.3.8.). 사회적기업 풀빛문화연대, 풀빛숲학교 동시 개교해.
- 보도자료(2014.4.30.).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2010). 2010 하반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더불어 사는 숲! 청소년 삶의 터! 사업결과 보고서.
-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2013). 2013.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결과 보고회.
- 오창홍, 박상규, 박태수, 오인자(2012).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13(5), 2395-2415.
- 이동흡(2013). 목재가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모색, '청소년문제와 산림교육' 세미나, 117-135.
- 이정아(2013). 청소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덕하(2013). 산림교육 정책방향,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모색, '청소년문제와 산림교육' 세미나, 3-20.
- 조규성(2010). 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아름(2010). 마을 숲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학생 인식 변화,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효정(2013). 특별교육 나눔의 숲 프로그램 운영사례, 산림교육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모색, '청소년문제와 산림교육' 세미나, 83-101.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환경교육법.

<내부자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내부자료.

보광휘닉스파크 내부자료.

숲사랑소년단 내부자료.

폴빛문화연대 내부자료.

<인터넷 자료>

http://dfcs.or.kr/sub1_1.php, 2014.5.17.

http://www.greenranger.or.kr/main/sub03_1_v.php?bConf=2&condition=&menuBid=&menuSid=&page=1&sid=339&words=, 2014.5.17.

http://www.greenranger.or.kr/main/sub03_1_v.php?bConf=2&condition=&menuBid=&menuSid=&page=1&sid=339&words=, 2014.5.17.

<http://www.keep.go.kr/portal/auth/search.act?>, 2014.5.13.

<http://www.keep.go.kr/portal/board/view.act?boardId=news&atclNum=20097¤tPage=1>, 2014.5.13.

<http://yap.youth.go.kr/yap/cta/certi/list.do>, 2014.5.13.

http://www.ecoforest.co.kr/sub03_0101.php, 2014.5.17.

세션 3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 및 운영현황 진단

발표



학교 징계 학생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김 범 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학교 징계 학생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위기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위기상황과 가정·구조적인 사회영향으로 위기상황에 놓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Wee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방안 중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프로그램 현황과 이러한 징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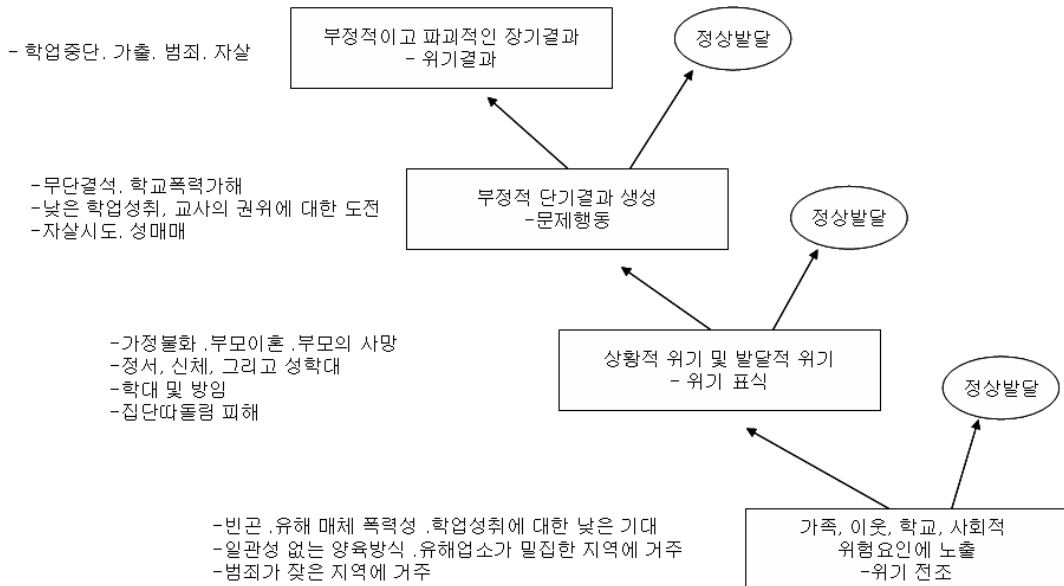
1. 위기청소년

‘위기(at-risk)’에 대해 McWhirter(2007) 등은 ‘현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미래에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군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정의에 따라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족환경이나 보호자 행동이 청소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다. 즉, 부정적 가족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이다. 둘째는 부정적인 가족 상황과 학대로 인해 사회적 또는 학업적으로 기능하는데 장애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방치 또는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의학적 또는 성장 합병증, 불안과 같은 심리사회적 장애, 비행(폭력, 약물남용, 성매매)등의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위기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위기전조 과정부터 위기결과

과정까지 위기 수준을 일련의 과정으로써 설명하면서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위기의 진행과정(출처: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2005)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윤철경 등(2005)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로서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기술을 제공받고, 학교의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 문제로 인한 실패 등을 겪는 청소년들로 정의 내렸다. 또한 김은경, 홍영오(2006)는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적응 청소년에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징계를 받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에서 내려지는 징계가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비행의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김범구, 조아미, 2013). 이를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청소년은 흡연, 결석, 학교 교칙의 불만, 선생님과의 갈등 등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징계의 원인들은 학업중단 등의 상황까지 이어진다. 학업중단 상황에 이르면 81백만 원의 생애 근로소득 감소와 6.2백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고(남기곤, 2001), 미국의 경우 고교중퇴자는 같은 시기에 졸업한 청소년에 비해 8,300달러의 소득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Sum, 2011), 평생에 걸친 경제적 손실은 3,35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하였다(Rumberger, 2011).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으로는 비행, 정신건강, 성격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행요인은 성적인 행동, 약물사용 및 흡연·음주, 공격성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가출이 있으며 정신건강 요인으로는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 및 시도, 인터넷 중독 게임 과다, 성격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자신감 약화, 친구에 대한 열등감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구조적 요인, 학대·방임, 부모형제, 가족학력,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관계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이혼 및 재혼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자녀가 있으며 학대 방임 요인으로는 정서적·신체적·실제적 방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 형제 요인으로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가족학력 요인으로는 부모 및 형제의 학교중퇴 경력, 낮은 학력이 나타나며,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적지지 및 개입 결여, 부모감독의 결여,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적 태도,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며 가족관계 요인으로는 가정불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낮은 특성이 있다.

학교 및 또래요인으로는 학업중단 및 학업부진 요인,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 학교또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업중단 및 학업부진 요인으로는 학업중단, 잦은 결석과 지각, 학업부진 및 낮은 성적, 개별교습의 실패, 학교전학이 나타나며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으로는 교사의 부적합한 준비 및 관련 교과과정의 부족, 적절치 않은 지도방식,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 교사들의 낙인·무관심·지지부족이 나타난다. 학교또래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또래의 비행여부, 또래의 위험행동 수용, 집단따돌림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2. 국내의 학생징계 현황

학교에서의 징계는 학생들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했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벌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칙위반 행동과 비행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학생징계처분이 선도규정으로 변화된 이후 물리적인 벌보다는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는 등의 정신적인 벌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계유형은 <표 1> 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이 있으며, 중학교 4개, 고등학교는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이와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표 2>와 같은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학생의 징계유형

중학교(4단계)	고등학교(5단계)
(학교 내의 봉사/3-7일)	
■ 사소한 교칙 위반, 벌점 초과 ■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재 및 교구정리, 교내 도서관 정리 등	
(사회봉사)	
■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의 형태로써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 등	
(특별교육 이수)	
■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학교에서의 교육이수 ■ 행동 및 심리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한 상담치료 교육 ■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및 치료 교육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출석정지)/과거의 '정학' 개념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하고 특별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 등 특별교육 이수	
	(퇴학)

<표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유형

징계유형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러한 학생의 징계내용 및 징계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제시되고 있으나, 학생의 징계현황에 대해 알려진 현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고 있는 징계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2011년 경기도 교육청이 최창의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교육청의 징계현황에 대해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학생 징계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2011년 경기도 초중고 청소년 중 징계를 받은 청소년은 44,027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교내봉사가 25,416명(57.7%)이고, 사회봉사가 9,777명(22.2%), 특별교육이수 5,389명(12.2%), 출석정지 3,086명(7.1%), 퇴학이 359명(0.8%)이다. 징계학생 중 초등생은 176명(0.4%)으로 비율이 낮아 이를 제외하였으며, 2011년 경기도의 중·고등학생은 1,750,261명으로 이중 4.7%인 43,851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를 받은 징계 학생은 8,475명(19.3%)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중고생의 0.9%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2013년 전국 중고생인 3,402,279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숲체험 참여대상자는 30,620명으로 추정된다.

<표 3> 2011년 경기도 징계 학생을 기준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대상 추산 근거

구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고등)	계
인원수	25,416명	9,777명	5,389명	3,086명	359명	44,027명
비율(%)	57.7%	22.2%	12.2%	7.1%	0.8%	100.0%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 고생 합계
인원수	814,927명	472,878명	462,456명	935,334명
징계학생수	176명	43,851명		43,851명(4.7%)

경기도 2011년 징계청소년		경기도 숲체험 대상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2013년 전국 중 · 고 청소년
43,851명	▷	8,475명	▷	중등 1,804,189명 고등 1,598,090명* 계 3,402,279명
4.7%		징계청소년의 19.3% 경기도 중고생의 0.9%		30,620명(0.9%)

* 일반고 : 1,356,070명, 특목고 : 67,099명, 자율고 149,760명, 특성학교 25,161명

** 2011년 경기도 최창익 교육의원이 경기도 관내 교육청의 협조를 받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고려하여 추정함

이러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Wee센터 외 특별교육이수 기관을 선정할 때 1년 단위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민간특별교육이수기관 74개, Wee센터 18개소를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단위위탁지정기관 152개소 중 Wee센터 23개 외 129개 위탁기관과 장기위탁지정기관 27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은 교육청 소속 Wee센터, 교육 관련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대안교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사회복지관, 아동센터, 대안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운영 중이며 기관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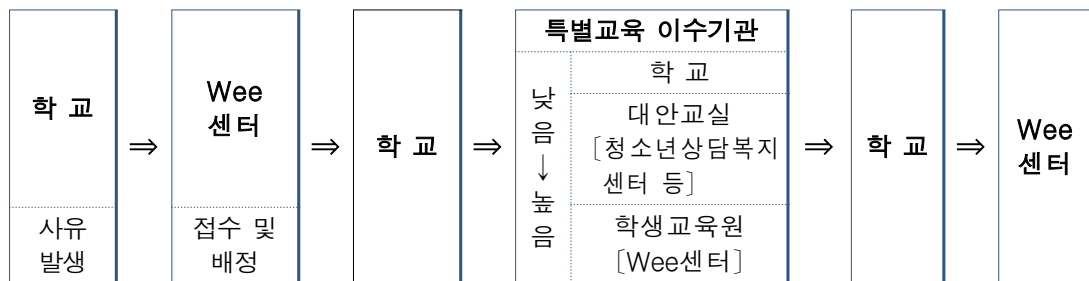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의 이수절차는 <그림 2>와 같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관에서의 이수프로그램 현황은 <표 4>, <표 5>와 같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성격검사, 집단상담, 자아탐색 및 수련활동, 체험활동 등을 기본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절도, 폭력, 인터넷 중독 등 특성화된 비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며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바가 크고, 충동적이고 행동과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성격유형이 많다고 하였고, 가족체계가 역기능적이어서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며 학교에서 처벌은 성적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며 학교에서 처벌을 많이 받을수록 비행은 더 심각해진다고 하였다(고민좌, 2000; 고승임, 2003; 박영신, 2007).

또한, 특별교육의 효과성으로 특별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비참여자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사회기술이 향상되었고, 반사회성과 공격성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생활태도 및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유성경 외, 1999).



출처 : 2013년 서울시 교육청.

<그림 2> 특별교육 운영 이수 절차

<표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유형

구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기본 활동	개인상담 활동 심리 및 성격검사 도전활동, 집단상담 활동 자아탐색 활동, 심성수련 활동 체험활동(봉사활동, 영상체험, 기본예절 교육 등) 추수지도	전문 활동	폭력예방 활동 금연교육 활동, 약물치료 활동 교통안전 활동 절도예방 활동 각종 비행예방 활동 인터넷 중독 치료(예방) 활동 분노조절 활동

출처: 경기도교육청(2011), 대안교육 관계기관 연수집.

<표 5> 특별교육 내용

기관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절도) 절도에 대한 선택과 책임, 문제행동 객관화, 미래설계 등 (자아존중감 향상 미술치료) 긍정적 사고 방식 갖기, 친구 및 가족과의 의사 소통 점검, 미래설계 등 (폭력예방) 폭력 개념 및 심각성 이해, 폭력상황 역할극, 폭력에 따른 대처 행동 습득, 미래설계 등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	■ 인생곡선 그리기, 가치관 경매 ■ 긍정적 사고 방식 갖기 ■ 성격검사, 금연교육 등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 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 나의 강점찾기 및 목표달성 다짐 ■ 역할극, 미래설계 ■ 학교규칙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약물예방 교육 ■ 봉사활동 등
경남 함안군 Wee센터	■ 자신에 대한 탐색 및 통찰 ■ 분노조절(공격성 및 갈등적 정서 정화) ■ 긍정적 자기상 발견 ■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서울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격검사 ■ 분노조절, 감정표현 ■ 학교폭력예방교육, 공격성 감소 레크레이션 ■ 봉사활동, 부모님께 편지쓰기, 독서치료 등
경기도 가평군 Wee센터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가족미술치료 등) ■ 상담 및 자연친화적 체험교육(자존감 향상 특강, 심리검사, 등산) 등
창원 Wee센터	■ 해병대 병영체험 ■ 장애인 봉사활동 ■ 자기성찰 ■ 분노조절 등
서울남부 Wee센터	■ 개인상담, 심리검사 ■ 학교폭력 교육(피해학생에 대한 이해 및 공감) ■ 진로검사 및 진로지도
북부지방 산림청	■ 산림치유 프로그램(나무와 호흡) ■ 대인관계 향상 인성교육

* 연구자가 기관별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내용임.

3. 숲체험 프로그램

숲체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숲환경을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숲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숲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숲 경관은 환자의 치유 및 회복능력을 촉진시키고, 숲속을 걷거나 숲 경관을 감상할 때에는 도시 활동과 비교하여 각성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활동이 억제되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농도가 높아지는 코티솔의 농도가 낮아지고 혈압, 맥박수가 낮아졌다(Ulrich et al., 1984). 나무들이 모여 있는 유기체 집단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들이 함께 호흡하며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신병의 치료, 이상행동의 교정, 사회성 증가, 신체의 균형 조절,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증세의 감소, 심리적 안정과 같은 치유효과가 있다(김지혜, 이현림, 2006). 또한, 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연환경이 자극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숲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물질은 코티솔의 농도가 감소하며 긴장, 불안, 분노가 감소한다(박범진, 2010).

특정대상에 대한 숲체험의 효과로는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이 녹색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 결과 주의력 결핍장애가 완화되고 감정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감 증진되었으며(Taylor et al., 2001c),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Kaplan et al., 1998), 또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 2개월까지 유지되었다(오창홍 외, 2012). 또한, 숲 체험은 우울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 건강 증진, 정서 발달, 자신감 형성, 자연 친화력 증진, 인터넷 중독 완화, 창의성 증진, 언어발달 및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김운수, 2011; 신원섭 등, 2007; 김지혜, 2004; 김정주, 2009; 오창홍 외, 2012; 이정아, 2013).

청소년 대상 숲체험의 효과로는 전범권(2012)은 숲체험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의 위기 청소년에게 심리적·생리적·행동변화·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오창홍 외(2012)는 청소년에게서 야기되는 학교부적응 문제, 결손가정, 약물중독, 청소년 범죄 등에 숲 체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다. 또한, 부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8년부터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출, 보호관찰,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학교부적응 등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숲체험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숲체험의 효과와 징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징계 학생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활용가능성 확대를 위해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숲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미 실시되었지만 타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고 연구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연구대상도 아동 또는 성인 중심을 대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위기청소년 중징계 학생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숲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효과성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분야의 상담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은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숲체험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일본에서의 숙박형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검증을 통해 심리적·사회적 능력·도덕적 능력·신체적 능력의 향상을 이루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은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인터넷이라는 매개물을 도피처로 삼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은데 숲에서의 활동은 쾌적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인터넷 대신에 대안적인 즐거움을 갖게 하여 인터넷 중독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숲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오창홍 외, 2012).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교육 이수기관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내에서의 활동이 주가 되고 실외의 활동은 병영체험,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실외에서의 프로그램이 청소년 안전, 예산,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실시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실외에서의 청소년 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 등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하며 사회성 발달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등 개인 내·외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소희, 2007; 김윤나, 박옥식, 2009; 윤은중, 2004). 이와 같이 특정 대상 및 숲체험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징계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부분에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 효과는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가산림교육센터 등과 일선 현장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교육 이수기관들은 대부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숲체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써 숲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제시되어도 기관 간 협력이 없다면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에 산림교육 전문가가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 또는 숲체험 기관에서 청소년 전문가를 회의체에 참여시키는 등 기관 간 협업 및 숲체험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특별교육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육이라는 건 징계의 형태이지 대상을 고려한 교육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여 숲체험에 적합한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비행, 은둔형 등 숲체험 활동에 적합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제시된다면 숲체험의 활용성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민좌(2000).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승임(2003). 제주상담센터에 의뢰된 특별교육생의 MBTI성격유형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용(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9-90.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소희(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은경, 홍영오(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 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윤수(2011). 숲치유 프로그램이 WEE class 중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2009). 자연체험활동이 유아의 호기심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8(2), 259-278.

김지혜(2004). 숲 체험을 통한 조직캠프 집단상담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친구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혜, 이현림(2006). 숲 체험을 통한 조직캠프 집단상담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3), 849-864.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박범진(2010). 산림유향활동을 이용한 숲치유의 실험적 접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3(1), 1-41.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신원섭, 연평식, 이정희(2007). 숲체험이 인간 심리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3), 34-43.

오창홍, 박상규, 박태수, 오인자(2012).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13(5), 2395-2415.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윤은중(2004).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과분석: 활동 만족도와 인식된 자기변화에 초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철경, 김영한, 백혜정, 서정아, 양미진, 윤경원, 이봉주, 이해연(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정아(2013). 청소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범권(2012). 학교폭력예방 정책세미나: 산림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 학교폭력예방세미나 자료집.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Kaplan, R., Kaplan, S. 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 (2007).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Rumberger, R. W.(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um. A., Khatiwada. I., McLaughlin. J., Palma. S.,(2011). *High School Dropouts in Chicago and Illinois: The Growing Labor Market, Income, Civic, Social and Fiscal Costs of Dropping Out of High School*.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Taylor, A. F., Kuo,F.E.,& Sullivan, W.C.(2001). Coping with ADD: The surprising connection to green play settings. *Environment&Behavior*, 33(1): 54-77.

Ulrich, R. S.(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647): 420-421.

발표

.....

사법단계에서의 비행청소년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진단

이 승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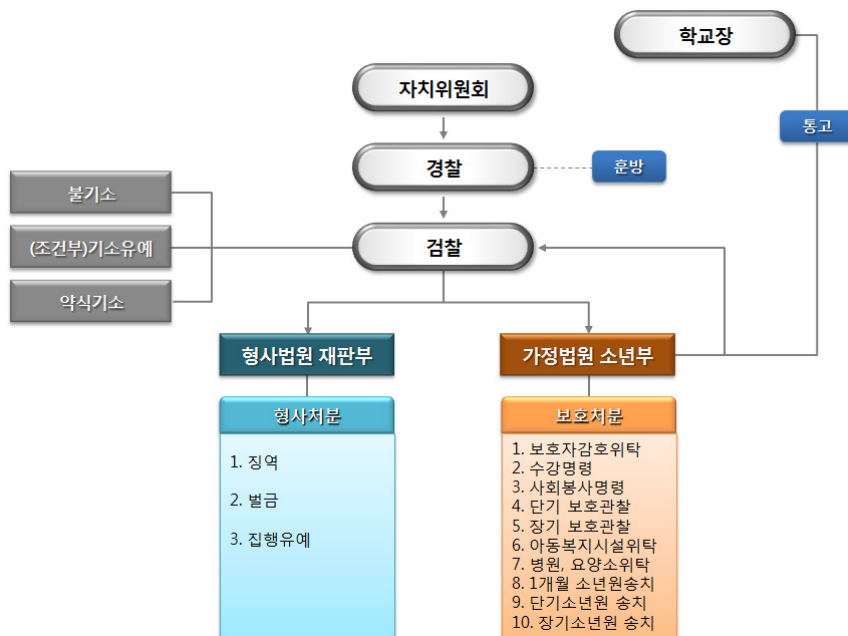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단계에서의 비행청소년 현황 및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진단

1. 개관

학교폭력으로 비행청소년 학교 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사법처리단계를 거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절차가 진행된다. 117신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되거나 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 사안 등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로 넘겨진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중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표 1>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도¹⁾



1) 이승현 외(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85페이지 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오게 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지 아니면 형사처분(형사법원)이나 보호처분(소년법원 즉,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단계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비행청소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거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법절차 단계별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이 어느 단계에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경찰단계의 비행청소년 처리현황

1) 경찰단계 비행청소년 처리절차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로 보낸다.

2) 선도조건부 훈방(불입건)

경찰은 학교폭력 등 경미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재량 하에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다. 경찰훈방인원에 대한 정확한 경찰통계자료는 없으나 학교폭력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를 통해 훈방건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2>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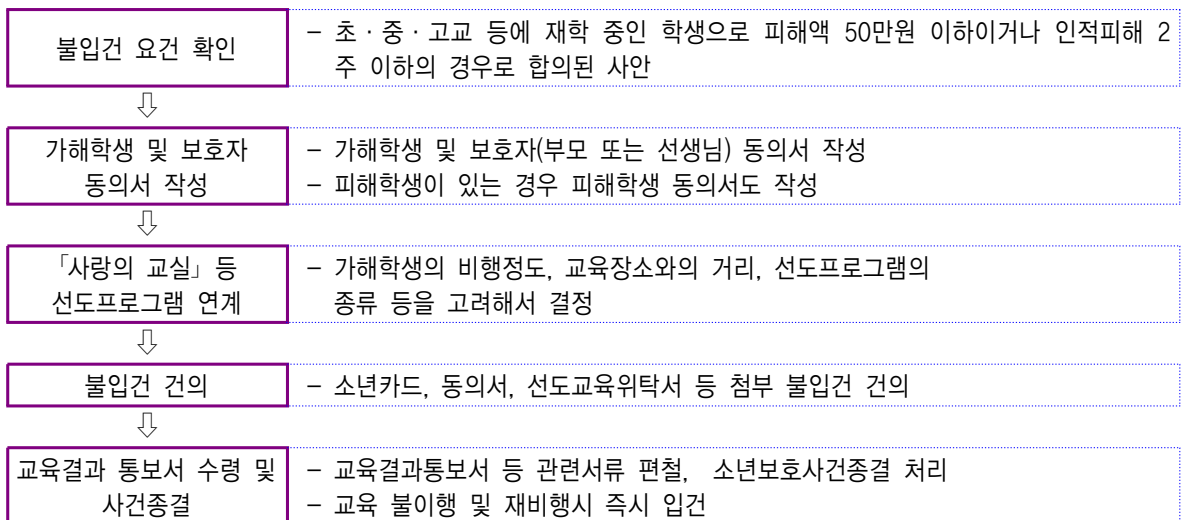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연도	기간	합계	자진신고				단속 및 피해신고		
			계	조치			계	조치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 등		입건	소년부 송치 등
2008	6.2~8.31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6.15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5.14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10.31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2011	3.14~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9.1~10.31	2,479	2,479	864	715	115	1,615	1,318	297
2012	3.19~4.20	2,811	744	693	68	56	2,037	1,197	840
	10.22~11.30								

- 주 1. 불입건은 훈방, 즉결심판이 포함됨.
 2. 입건은 구속, 불구속이 포함됨.
 3. 소년부송치 등에는 소년부 송치와 기타 등이 포함됨.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2005년부터 경찰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피의자 중 100만원 이하의 물적 피해·전치 3주 이하의 폭력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선도 조치를 조건으로 훈방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법무부의 지시로 해당 요건이 물적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인적 피해가 전치 2주 이하인 학생으로 제한됐다.



3) 사랑의 교실 운영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면담, 역할극, 미술치료, 봉사, 체험활동, 부모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신의 문제행동 이해 및 대처방안 모색, 진로 및 긍정적 미래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이상 교육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총 8,5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가인원	7,630	6,837	17,877	9,859	8,531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표 4>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표준안²⁾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1회차	1시간 /1회	【초기면접】 - 경찰서로부터 인계, 면담 및 검사 후 선도방법 결정 · 집단선도 대상자 : 소그룹으로 편성 후 교육 · 집단선도 곤란자 : 개별상담 또는 멘토링	2회차 교육과 병행 가능
2~6회차	2시간 /4회	【소집단 교육】 - 지도자 1명당 10명이내의 소집단 구성을 원칙으로 10시간이상 교육 실시, 안정성을 제공하고 집단의 응집력 촉진 - 학교폭력 가해학생, 일반소년범 등 최종별 대상자 구분 - 주요내용 · 자신과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 진로탐색 및 긍정적인 미래설계 등 ※ 폭력범은 분노조절, 정서조절, 주장훈련을 절도범은 문제해결 방식, 인내심 고양 등 중점 교육 - 방 법 · 자발적인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 · 역할극, 미술치료, 봉사·체험활동 등 - 장 소 · 원거리 거주청소년의 경우 가급적 거주지 등 인접지 운영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토록 편의제공	

2) 경찰청(2009),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

부모상담 또는 부모교육	필요시 /1회 이상	- 대상자 초기면접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 실시 ※ 경제활동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는 전화상담 - 주요내용 · 부모의 역할인식, 자녀의 발달단계 및 성격유형 이해 · 자신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대화법	
사후관리	교육 종료후 3개월 이내 /1회이상	- 프로그램 수료 후 가정·학교·사회의 적응여부 점검 · 전문가 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활용 · 내방, 전화, e-mail, 인터넷 채팅 등 - 관련단체 등과 연계,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 등 복지 지원	

※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상이함.

3. 검찰단계의 비행청소년 처리현황

1) 검찰단계에서의 비행청소년 처리실태

검찰단계 비행청소년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유예를 하는 비율이 높다. 2012년도 검찰이 소년범죄를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102,871명 중 기소유예 41.8%, 소년보호 송치 35.5%, 구공판 4.8%, 구약식 2.9%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 비행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2008년도 21.0%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행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141 (0.1)	- (0.0)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의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5,812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표 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연 도	소년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08	134,992	5,886
	2009	113,022	7,104
	2010	89,776	2,967
	2011	89,068	1,363
	2012	107,490	5,812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표 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폭력 행위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1	1,363	364	603	7	7	196	66	120
2012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표 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멘토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①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 (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2012년도에 4,976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408명이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③ 멘토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대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 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이다.

④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의의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부터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10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임무

구 분	기 관 명	설립일	교 육 과 정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부산·창원· 청주·광주	2007.7.23	- 상담조사 - 결정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대구·서울남부· 서울북부·인천	2012.6.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대전	2007.7.23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무연수
	안산	2007.7.23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 ‘꿈키움센터(2013년부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은 위기·비행 초기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안교육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서 의미하는 대안교육과는 다르다.

대안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된 부적응학생 및 복교 전 중도탈락 학생,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기소유예 대상 소년,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보호관찰 부가처분을 받는 소년 등이다. 이들에게는 3일 과정(21시간), 1주 과정(35시간), 2주 과정(70시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교육 기간에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일반교육)이 실시된다.³⁾

3) 권해수, 김현정(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p.265.

<표 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단위 : 명)

연 도	내 용	대안교육	심리상담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보호자 교육
2009	계	43,263	8,187	2,951	298	2,791
	부산센터	7,031	563	276	25	140
	광주센터	1,644	869	679	53	635
	청주센터	3,626	310	425	10	278
	안산센터	16,153	1,970	-	-	-
	창원센터	14,809	416	667	30	485
	대전센터	-	-	-	-	-
2010	계	61,865	4,366	1,688	230	1,516
	부산센터	19,015	603	254	10	170
	광주센터	12,099	796	603	57	486
	청주센터	7,607	504	406	1	342
	안산센터	15,120	1,918	-	-	277
	창원센터	8,024	545	425	162	241
2011	계	63,312	5,762	1,646	24	1,683
	부산센터	26,303	724	431	1	465
	광주센터	9,848	602	419	-	348
	청주센터	10,670	526	343	8	301
	안산센터	12,407	3,399	-	-	296
	창원센터	4,084	511	453	15	273
2012	계	66,388	7,448	2,790	7	3,044
	부산센터	21,667	614	433	-	749
	창원센터	4,006	433	492	-	430
	대구센터	5,423	456	155	-	195
	광주센터	3,881	610	448	-	366
	청주센터	16,686	567	286	7	328
	안산센터	10,771	3,260	-	-	289
	서울남부센터	505	450	272	-	186
	서울북부센터	1,548	596	359	-	254
	인천센터	1,901	462	345	-	247

주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 로파크로 별도 운영됨.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

①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설된 6개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②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에 대한 대안교육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 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 대안교육 실시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08	11,095	8,798	1,516	211	570
2009	44,959	5,629	1,425	294	37,611
2010	63,513	11,396	1,124	342	50,651
2011	67,471	21,280	1,191	911	44,089
2012	71,796	26,068	2,034	1,274	42,420

주 : 2008년 학교대안교육인원에 법교육인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기타인원에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③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표 13> 보호자교육 실적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일반위탁소년 보호자
2008	3,494	56	3,438
2009	5,465	455	5,010
2010	6,626	293	6,333
2011	7,498	483	7,015
2012	8,101	527	7,574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④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

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 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짱’ 등 맞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4. 법원단계에서의 처리현황

1) 법원단계에서의 처리절차 흐름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넘겨지면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로 그 동기와 자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 소년법원에서의 처리절차

가. 소년법원의 기능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수원·춘천·청주·창원·의정부·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어 단독 소년부가 설치되었다.

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⁴⁾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5,620명이었으나 2009년 6,065명, 2010년 6,295명, 2011년

4)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6,6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6,582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일일평균수용인원은 2008년 341명에서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4>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 수 용 인 원	5,620	6,065	6,295	6,682	6,582
1일 평균수용인원	341	399	419	456	464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① 위탁소년 교육

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에 대한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②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435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4,008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427명이었다.

<표 15>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단위 : 명, %)

구 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용분류심사	계	5,198 (100)	5,627 (100)	5,723 (100)	6,007 (100)	5,435 (100)
	일반분류심사	3,796 (73.0)	3,729 (66.3)	4,380 (76.5)	4,634 (77.1)	4,008 (73.7)
	특수분류심사	1,402 (27.0)	1,898 (33.7)	1,343 (23.5)	1,373 (22.9)	1,427 (26.3)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다. 소년법원 보호사건 접수현황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2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3,536건으로, 검사송치가 67.5%(36,13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3.9%(12,799명), 법원 송치가 5.3%(2,848명),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2.9%(1,588명)이다.

<표 16>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 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법 제4조제3항)
2008	41,754 (1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2009	48,007 (1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	44,200 (1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	46,497 (100)	2,417 (5.2)	32,803 (70.6)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2.9)	168 (0.3)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라.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8년 76.4%에서 2012년 71.2%로 5.1% 감소하였다. 검사의 불처분결정율은 2008년 5.1%에서 2010년 6.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4.5%로 감소한 반면에, 검사송치율은 2008년 0.4%에서 2012년 1.4%로 계속 증가하였다.

<표 17>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소 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감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보 호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2 호	1,2,3 호	1,2,4 호	1,2,5 호	1,2,3,4 호	1,2,3,5 호	1,3 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2011	48,713 (100)	35,072 (72.0)	4,021 (8.3)	18 (0.0)	53 (0.1)	77 (0.2)	28 (0.0)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4.9)	1,990 (4.1)	1,629 (3.3)
2012	50,771 (100)	36,150 (71.2)	4,222 (8.3)	51 (0.1)	104 (0.2)	103 (0.2)	71 (0.1)	14 (0.0)	195 (0.4)	7 (0.0)	1,206 (2.8)	1,169 (2.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구분 연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 송 처	기타*			
	1,3,4호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2011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6)	146 (0.3)	922 (1.9)	1,915 (3.9)	122 (0.2)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						
2012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6 (0.1)	1,164 (2.3)	2,607 (5.1)	485 (1.0)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						

주 1. 2호 및 3호 처분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①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2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10,612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0,02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86명이다.

<표 18> 소년대상자 수감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약물	준법 운전	심리 치료	가정 폭력	성폭력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2년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8,175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510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665명이다.

<표 19> 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자연 보호	복지 분야	공공 시설	대민 지원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③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전체 보호관찰 접수인원 121,188명 중 소년대상자는 46,336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의 3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08년 36,099명, 2009년 46,686명, 2010년 45,990명, 2011년 46,336명, 2012년 47,6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0>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연 도 \ 구 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 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2년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 38,131명(8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 6,172명(13.0%), 임시퇴원 2,009명(4.2%), 집행유예 1,203명(2.5%)순이다.

<표 21>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소년 보호	가석방	임시 퇴원	가정 보호	성매매 보호	기소 유예	성구매 자교육	벌금 대체	이수 명령
2008	36,099	1	1,907	30,488	97	945	9	32	2,591	29	-	-
2009	46,686	4	2,174	40,139	95	1,156	6	29	3,060	24	9	-
2010	45,990	1	1,723	38,681	53	1,177	3	15	4,255	8	78	2
2011	46,336	0	905	40,164	34	1,089	2	7	4,087	9	35	4
2012	47,621	1	1,203	38,131	51	2,009	6	1	6,172	9	34	4

주 1.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2.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부터,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실시됨.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④ 소년원 송치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을 청주로 인수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22>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 관 (학교명)	대 상	교 육 과 정
수도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사진영상·측량) •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미용·피부미용·제과제빵·텔레마케팅) • 보호자교육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충부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 의료·재활교육, 8호처분자(男) 교육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 8호처분자(女)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화용접·건설기계운전·건축환경설비)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화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8호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07년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3>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 명, (%))

연도 \ 기간	계	의료 (6개월 미만)	단기 (6개월 미만)	장 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일반A	일반B	일반C	
2008 (~'08.6.21)	651 (100)	4 (0.6)	318 (48.9)	144 (22.1)	104 (16.0)	81 (12.4)	8.9
연도 \ 기간	계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 ('08.6.22~)	2,526 (100)	66 (2.6)	895 (35.6)	783 (30.9)	782 (30.9)	6.9	
2009	2,672 (100)	52 (2.0)	1,218 (45.6)	684 (25.6)	718 (26.8)	4.93	
2010	2,755 (100)	56 (2.0)	1,339 (48.6)	771 (28.0)	589 (21.4)	5.1	
2011	2,559 (1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2012	3,211 (100)	103 (3.2)	1,660 (51.7)	792 (24.7)	656 (20.4)	4.6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 이내)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표 24> 보호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출원사유 연 도	신수용인원	1일 평균수용인원
2008	1,732	1,361
2009	2,775	1,191
2010	2,822	1,162
2011	2,960	1,264
2012	3,429	1,390

자료 :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2,960명보다 15.8% 증가한 3,429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 1,390명이 되었다.

<표 25> 소년원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⁵⁾

비행예방	집단상담	체험활동	교양교육
절도비행예방교육	미술치료	자연친화교육	독서클리닉
폭력예방교육	인간관계 회복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성비행예방교육	두드림	스포츠교실	보호관찰 안내
약물예방교육	영화치료	솔로몬 파크	
교통안전교육	세상열기	인라인교실	
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	법교육프로그램	댄스교실	
	음악치료	등산	
		전통체험	

※ 소년원 수용자의 현황이나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상이함.

5) 이승현, 강경래(2010). 소년원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p.68.

2) 형사법원에서의 처리절차

가. 형사법원의 처리현황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기형과 벌금형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2년에 종국 처리된 소년범 4,377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804명(18.4%)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557명(12.7%), 벌금형이 118명(2.7%), 정기형이 7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기타
2008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010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2011	3,499 (1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250 (64.3)
2012	4,377 (100)	-	-	7 (0.2)	804 (18.4)	557 (12.7)	118 (2.7)	2,531 (66.0)

주 1. '기타'에는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등이 포함됨.

2. 본 통계는 2010년까지는 20세 미만자, 2012년부터는 19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나. 소년교도소의 수용현황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56명, 2009년 169명, 2010년 146명, 2011년 114명, 2012년 170명을 차지하였다.

<표 27>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용인원	156	169	146	114	170

자료 : 법무부(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54명(31.7%), 절도범이 42명(24.7%), 강도범 등이 24명(14.1%), 살인범이 11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연 도 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56 (100)	169 (100)	146 (100)	114 (100)	170 (100)
절도	73 (46.8)	62 (36.7)	45 (30.8)	26 (22.8)	42 (24.7)
사기·횡령	1 (0.6)	3 (1.8)	3 (2.1)	0 (0.0)	2 (1.2)
폭력·상해	9 (5.8)	8 (4.7)	1 (0.7)	5 (4.4)	17 (10.0)
강간 등	24 (15.4)	44 (26.0)	32 (21.9)	33 (28.9)	54 (31.7)
강도 등	24 (15.4)	32 (18.9)	33 (22.6)	18 (15.8)	24 (14.1)
살인	9 (5.8)	6 (3.6)	11 (7.5)	10 (8.8)	11 (6.5)
과실범	5 (3.2)	2 (1.2)	3 (2.1)	1 (0.9)	2 (1.2)
기타	11 (7.0)	12 (7.1)	18 (12.3)	21 (18.4)	18 (10.6)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었다.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징역형, 10년 미만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도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25.9%, 10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7.6%,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7.1%, 1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2.3%, 1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표 29>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형명·형기						
계		156 (100)	169 (100)	146 (100)	114 (100)	170 (100)
징역 형	무기	-	-	-	-	-
	15년 이상	-	-	-	3 (2.6)	3 (1.8)
	15년 미만	3 (1.9)	3 (1.8)	5 (3.4)	2 (1.8)	4 (2.3)
	10년 미만	14 (9.0)	15 (8.9)	15 (10.3)	12 (10.5)	13 (7.6)
	5년 미만	27 (17.3)	42 (24.9)	45 (30.8)	38 (33.3)	44 (25.9)
	3년 미만	87 (55.8)	89 (52.7)	58 (39.7)	48 (42.1)	94 (55.3)
	1년 미만	24 (15.4)	19 (11.2)	23 (15.8)	10 (8.8)	12 (7.1)
	6월 미만	1 (0.6)	1 (0.6)	-	1 (0.9)	-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55명인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2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는 30명이다.

<표 30>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인원(계)	85	75	75	75	55
일반학과교육	35	35	35	35	25
방송통신고 (졸 업 인 원)	50 (8)	40 (6)	40 (13)	40 (13)	30 (5)

자료 :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5. 비행청소년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 현행 비행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가. 경찰단계 비행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경찰단계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경미한 초범비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80%가 넘는 비행청소년이 기소되어 형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상하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물적 피해 또는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훈방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이마저 적용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비행 대부분이 경미한 비행에 해당하지만 '2명 이상 또는 야간의'라는 특수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방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검찰로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경찰단계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경우 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재비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시기가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을 하는 경우 사랑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이 경찰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지역마다 운영기관이 상이하

적용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검찰단계의 비행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검찰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처리 사건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기소유예의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어 있고, 위탁기관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간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의 경우 센터내에서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긴 하나, 학교부적응자와 초기비행자가 혼재되어 있어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의 형태로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법원단계에서의 비행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형사법원을 통해 소년교도소로 보내지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의 처우와 다른 점이 거의 없고 교과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반면 소년법원을 통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처우 등을 받는 경우에 비교적 다양한 처우를 경험할 수 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나마 구체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경우 초기 비행자인 청소년에 대하여 대부분 상담지도에 그치고 있고, 지도 및 감독도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직원의 수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매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년원 처우의 경우 기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다르긴 하나 교육의 내용에 인성교육, 체험교육, 교양교육, 비행개선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체험교육의 경우 시설 내 수용의 한계점 때문에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외부활동으로 인한 사고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진단

가. 활용가능성 판단

숲체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자살 위험에 빠진 초기비행청소년에게 숲이라는 자연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도덕성과 신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의 경우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고, 교감신경계가 감소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증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감을 알 수 있다.⁶⁾

숲체험 프로그램은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하여 사법절차 단계에서 비행예방교육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체험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과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저연령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지식수준과 연령에 따른 이해도가 다른 측면이 있으나 숲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유익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나. 활용대상 및 단계

사법절차 단계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숲체험 프로그램이 시설이 아닌 자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 내에서 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초기비행자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에 큰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연령 비행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본다.

우선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의 경우도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대응 분위기로 인해 매년 대상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의 개별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친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숲체험 프로그램은 공동체의식 향상과

6) 오창길(2014.3.31.), “숲을 활용한 학교교육 방안”, 2014 전라북도 교육청 숲교육 초청세미나 자료집.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도조건부 훈방이 경미한 범죄나 저연령 청소년범죄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은 높으리라 기대된다.

검찰단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도 활용가능성이 있다. 검찰로 인계된 청소년 비행사건의 40%이상이 기소유예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부분이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도조건부 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활용가능성도 판단해 볼 수 있다.

법원단계에서는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우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년보호관찰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지역의 여건과 보호관찰 인력의 활용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처우 가운데 특히 초기 비행자가 많이 입소하는 8호처분의 경우 체험활동으로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소년원에서 등산이나 자연친화 교육 등 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정에 따라 외부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설 내 처우과정에서 외부활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체험활동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8호처분 단계에서 초기 비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숲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외 처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8호처분의 성격인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처우를 혼합하는 처우로서의 특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 함양과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권해수, 김현정(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 경찰청(2013). 경찰백서.
- 경찰청(2009).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 오창길(2014.3.31). “숲을 활용한 학교교육 방안”, 2014 전라북도 교육청 숲교육 초청세미나 자료집.
- 이승현, 강경래(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 외(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이트 <http://www.cppb.go.kr> 2014. 5. 2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보호관찰과 내부통계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

토론문



위기청소년(학교폭력)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

김 주 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위기청소년(학교폭력)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

1. 들어가며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현재 위기청소년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숲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직접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이런 토론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를 표한다. 토론의 내용이 점차 발전하고 개선되어 위기청소년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시작한다.

2. 학교 징계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진단 및 숲 프로그램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체계적인 접근의 모색방안으로 숲 프로그램 효과성의 제시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 동안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숲체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상대적으로 양적자료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작은 집단수와 비교집단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위기청소년들은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특성을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참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숲 혹은 산림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기존의 숲체험 프로그램은 공간(숲, 산림)과 체험프로그램의 개별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숲 프로그램 활용에 관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예상되는 어려움은 참가자의 확보와 지속적인 참가, 숲 프로그램의 부족한 이해 그리고 활동장소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유관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리적으로 원미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천 지역의 특성상 경찰서, 학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의 환경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참가 대상과 특성에 따른 숲체험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먼저 활동장소 확보의 어려움은 전국 126개의 국립과 지자체, 개인휴양림과 200개의 지자체 도시숲·산림공원 등을 활용하고 350개에 달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집단, 숙식을 탈피하여 지속적인 당일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이미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나 정리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 받은 숲해설가(4,244명), 유아숲지도사(58명), 숲길체험지도사(441명) 등 4,743명의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의 노하우를 잘 조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참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확보와 지속적인 참가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네트워크로써 방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의 학교, 경찰서, 보호관찰소, 쉼터, 지역아동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안에서 다양한 경로로 위기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가청소년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숲 프로그램에서의 지지와 격려가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비행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진단 및 숲 프로그램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공감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원미경찰서, 부천보호관찰소와의 협약으로 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과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중에 있다. 참가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숲에서의 체험과 활동에 대해 만족을 보였고, 특히 작년에 진행하였던 학교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프로그램은 사후 측정결과 집단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서적 안정(Big 5 성격검사, 한국적성연구소, 1997 활용)이 향상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참가청소년 학교의 담당자와 학교전담 경찰관들과의 면담에서 출석률과 성적이 향상되는 등 참가자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에서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인 ‘숲으로 가자!’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교육청·일선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여 수목원·휴양림 등의 산림시설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 중독 치유 캠프를 운영했으며, 작년까지 1,167천명이 산림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은 이미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 발표자의 의견은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대상 및 단계를 선도조건부 훈방 혹은 기소유예에 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 및 단계를 확대해야 할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9호·10호 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경우 극기심과 도전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참가청소년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돕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멘토와 함께 등산을 해왔다¹⁾. 이와 같이 대상을 확대하여 9호·10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도 사회적 처우로서의 숲 프로그램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1회 운영하여 청소년 299명, 교사 및 멘토 463명이 참여

4. 숲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제언

○ 숲체험 센터(가칭)을 주요 도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전국의 휴양림, 위기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상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의 청소년 및 시민에게 숲체험에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적인 개념을 만들고 위기청소년을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교육센터가 이미 설치되었거나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숲체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전환필요

- 지방산림관리청이나 휴양림에서 이미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된 40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숲해설가와 숲길안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휴양림이나 기관에서는 사설체험학습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숲체험이 해설이나 안내의 내용에 치우쳐 있어서 산적된 프로그램은 많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흥미와 임팩트가 부족하여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도 숲체험의 의미를 지식이나 정보전달을 넘어서 산악레포츠와 치유의 숲 등과 같이 대상과 욕구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여 함께 간다면 참가청소년에게 숲이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관심을 높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토론문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

김 기 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

1.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현황

보호관찰제도는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 제도이다. 사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은 1989년 제도도입 후 그 효과성과 인권친화성, 비용효율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89년 보호관찰실시사건수가 10,755건이었으나 2000년 167,052건으로 폭증하였고, 2010년에는 221,811건이나 되었다. 협의의 보호관찰에 한정하더라도 연간 실시사건수가 100,000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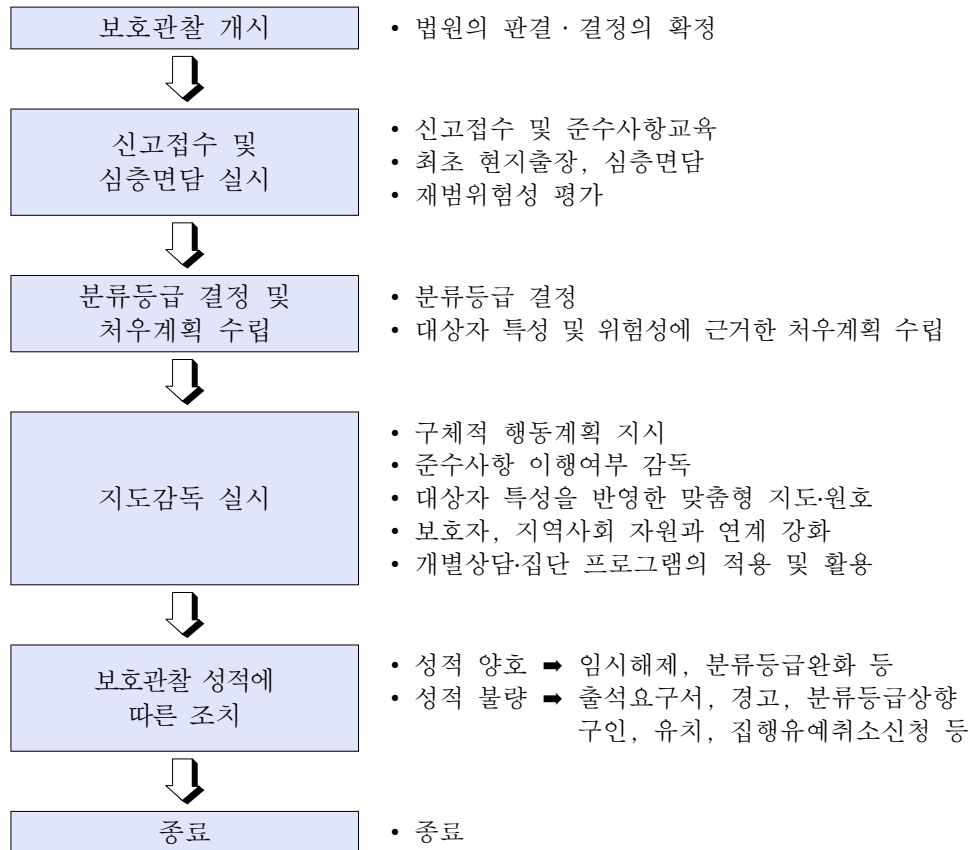
2013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보호관찰 실시사건 현황(2013년)

구분	전체		소년	
	실시사건	현재원	실시사건	현재원
보호관찰	96,574	49,048	50,839	21,398
사회봉사명령	41,511	6,291	10,606	1,276
수강명령	28,054	5,297	10,176	1,590
성구매자교육	3,997	565	10	2
벌금대체	4,668	1,047	50	9
이수명령	514	148	10	0

표의 내용을 상술하면 '13년 한 해 동안 소년에 대한 (협의의)보호관찰 실시사건 수는 50,839명이며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은 10,606명, 수강명령 실시사건 수는 10,176명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보호관찰집행내용과 관련해서 발표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겠다. 먼저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지도감독의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보호관찰집행단계 절차도

최근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집행에 있어 중요시되는 점은 보호관찰의 과학화, 전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재범위험성평가를 2014년부터는 소년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초로 대상자의 범죄 심각성, 범죄유발욕구, 환경적 열악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분류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분류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주요문제유형인 분노조절, 공감능력 등 감정영역, 반사회적인 또래관계, 가족관계 등과 변화동기유발, 강점극대화의 5가지 영역과 관련한 보호관찰관의 개별면담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년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처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강명령이 법원의 판·결정단계에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문제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만, 수강명령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도 대인관계나 정서 등에 있어 일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소에서는 2013년부터 기관별로 기관의 실정에 맞는 여러 전문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성인보호관찰대상자와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대비시켜 정리해보았다.

<표 2>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현황(2013)

구 분		계	전자감독대상자	소년대상자	일반 성인대상자
프로그램 유형		524	213	289	22
법교육	법교육	11	—	9	2
사범별 전문처우프로그램	가정폭력예방	3	—	—	3
	성폭력치료	5	—	3	2
	약물치료	7	—	2	5
사회성회복	가족관계회복	18	8	8	2
	대인관계회복	17	7	10	—
심성순화 및 심리치료	감정치유	17	3	14	—
	심리치료	55	45	8	2
	심성순화	39	13	26	—
	음악치료	1	—	1	—
	미술치료	2	1	1	—
	명상체험	4	2	2	—
	자아 찾기	23	1	21	1
	리더쉽훈련	2	—	2	—
	극기훈련	3	—	3	—
	템플스테이	8	2	6	—
진로탐색	진로탐색	54	5	47	2
체험프로그램	도예체험	1	—	1	—
	등산프로그램	29	23	6	—
	래프팅체험	3	—	3	—
	마라톤체험	2	1	1	—
	문화체험	144	68	75	1
	봉사프로그램	7	3	4	—
	생태체험	2	—	2	—
	스포츠체험	20	7	13	—
	견학	21	4	17	—
	목욕	18	18	—	—
금주 · 금연	금연	4	—	4	—
	금주	4	2	—	2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은 보기에 따라 수감명령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지도·감독)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이다.

성인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점과 교육적 개입에 대한 저항, 교육적 효과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교육 형식의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인 점이 위 표에서와 같이 소년에 비해 전문처우프로그램이 적은 이유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 등에서 증거기반의 실천원리(Evidence-Based Practice)에 근거한 처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대상자의 재범위험성(Risk), 범죄관련욕구(Criminogenic Needs), 개인적 반응차원(Responsivity) 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RNR원칙)가 기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전문적 처우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보호관찰 현실에서도 처우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과 이를 통한 개별 대상자의 범죄욕구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개별처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숲체험 프로그램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의 적용 가능성

소년과 관련된 전체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경우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을 거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보호관찰소에서 각 다른 유형의 보호관찰처분에 따라 집행의 형식이나 개입방식이 차별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건전한 사회화 촉진이나 비행성향의 개선을 통한 재범예방’이라는 보호관찰의 목적은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심성순화나 인지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처우적 접근은 중요하고 보호관찰의 본질적 개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협의의)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전문처우가 중요하다는 점은 언급한 바

있다. 보호관찰영역에서 프로그램적 접근이 가능한 처분은 보호관찰 이외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수강명령이 범죄와 관련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처분이라는 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이 수강명령의 내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점이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 예컨대 ‘성폭력가해자 수강명령’, ‘중독치료 수강명령’, ‘절도예방수강명령’ 등 범죄성에 표적을 두고 내려진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서순화 수강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 지금이라도 수강명령의 일부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도 강제된 근로를 통해 사회에 속죄하고 근로의식제고, 봉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소속감 향상 등을 기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견 숲체험 프로그램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숲체험의 내용에 환경정화활동이나 장애우 동반 숲체험 등 봉사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가진 절도범이나 스트레스의 해소가 폭력적 행동과 결부된 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화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도 적절한 아이템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보호관찰의 전문처우가 심성순화나 진로탐색, 사회성회복 등 몇 가지 범주로 나뉘지는 것을 위에서 보았지만, 숲체험 프로그램도 체험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충분히 보호관찰전문처우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언급했듯이 증거기반실천원칙에 따라 숲체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소년의 어떤 심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강명령과는 다르게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구체적 문제해결영역이 특정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정서순화의 효과로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시험적인 실시 등을 전개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시간을 요한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관찰집단프로그램이 소집단 장기처우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대상자의 문제영역이나 문제의 심각성, 해결되어야 할 심리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단기 또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

숲 프로그램 관련 발표원고에 대한 의견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숲 프로그램 관련 발표원고에 대한 의견

-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 청소년 재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숲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논하는 데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은 자리라 생각됨
- 숲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다소 생소하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숲 프로그램은 유아나 아동, 일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적응학생이나 비행청소년 대상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숲 프로그램을 다소나마 알게 되고 일탈청소년에게도 필요한 활동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숲 프로그램이 학교규칙 위반 학생이나 위법행동을 한 청소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도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였음. 적용대상자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내용이지는 하지만 숲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아쉬웠음.
- 여러 발표자들이 언급한 바 있듯이 숲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 등으로 향후 숲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숲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공간의 대안인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쾌적감과 안정감을 갖고 인터넷 중독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숲 체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보편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에게도 효과적이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기에 숲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고 효과 역시 당연히 부분적이라는 것 또한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 프로그램이 정계학생과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숲 프로그램이 우선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듦. 왜냐하면 재비행을 유발하는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정계학생이나 비행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재비행 원인을 차단하는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임. 비행청소년은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고 가족 또한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주위의 탓으로 돌리는 등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목표달성이나 행동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는 경우도 적지 않음. 다수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는 이러한 학생들 대상의 숲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활동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게다가 자발성이 부족하고 매사'귀차니즘'에 익숙한 청소년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진행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 또한 숲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정계 학생 대상의 특별교육 이수기관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되고 실외 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움. 각기 다른 학교에서 다른 문제를 안고 의뢰된 정계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외 활동을 실시하기에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부담감이 있고 한계도 있음. 실외에서의 청소년 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 등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하며 사회성 발달에도 효과적이지만, 실외에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해볼 때 예산, 시간, 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함. 청소년수련기관의 경우,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지만, 특별교육이수기관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도 많아서 외부활동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보험을 든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동 중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보장되어야 함

숲 프로그램 전문가의 진행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도, 특별교육기관의 인솔자,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1회성이 아닌 만큼, 매회기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서울의 경우, 현재 학교로부터 의뢰된 정계학생 교육에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있기는 하나 실외활동을 추진할 만한 예산은 아님

- 하지만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의 경우라면, 숲 체험 프로그램의 적용이 청소년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짐. 발표자가 제시했듯이 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이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 숲 체험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 이 외에도 6호 처분(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대상자 역시 숲 체험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인 쇄 2014년 5월 29일

발 행 2014년 5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최 창 욱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